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66호 【루게 제24579호】 주제 103 (2014)년 6월 15일 (일요일)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전당, 전군, 전민이

일심단결하여 선군의

위력을 더 높이 떨치자!

사설

## 6.15의 기치높이 반통일세력의 도전을 단호히 짓부시자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사업은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유훈을 받들어 겨레의 세계적승리를 성취하기 위한 성스러운 애국위업이다.

6.15공동선언발표 14돐을 맞이한 오늘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자주통일에 대한 환희와 격정으로 뒤흔어지던 력사의 그 날을 감회깊이 돌이켜보고있다.

주제 89(2000)년 6월 평양에서 민족분열사상 처음으로 북과 남의 수교상봉이 마련되고 력사적인 6.15공동선언이 채택된것은 우리 민족의 자주통일위업수행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특기할 사변이었다.

공동선언이 채택됨으로써 대결의 장막이 질게 드리웠던 이 땅에 격동적인 6.15통일시대의 희망찬 아침이 밝아왔다. 이전에는 상상할수 없었던 북과남의 사면적상봉과 우리 겨레는 둘이 되면 못할 하나이라는 세계에 보여준 뜻깊은 현실, 자주통일, 평화변영의 확고한 토대를 마련한 10.4선언의 채택도 뜻깊은 6.15와 잇닿아있다. 6.15통일시대는 우리 민족사에 자주와 단합의 큰 자욱을 남기었으며 겨레의 심장마다에 꺼질줄 모르는 통일애국의 불씨를 심어주었다.

6.15공동선언은 새 세기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이며 자주통일의 리정표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조국통일의 주제는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민족이며 나라의 통일은 오직 우리 민족끼리의 힘에 철저히 쉰 때 민족의 리과 요구에 맞게 자주적으로 실현할수 있다.》

6.15공동선언의 기본정신, 근본핵은 우리민족끼리였다. 우리 민족끼리는 온 겨레의 가슴마다에 외세를 배격하고 민족의 단합된 힘을 토대로 변영을 안아올 의지를 북돋아준 새 세기 조국통일운동의 기틀이념이다. 온 겨레의 심장을 틀어잡는 우리민족끼리니로 그들

의 가슴속에 불타는 애국심을 폭발시키고 북남관계개선과 통일애국위업의 힘찬 전진을 추동한 바로 여기에 6.15공동선언의 생명력이 있다. 지나온 14년간을 돌이켜보는 이 시각 우리 민족은 6.15통일시대 가 얼마나 좋았으며 공동선언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하는것을 더욱 뼈저리게 절감하고있다.

6.15공동선언은 분열의 비극속에 더이상 속된오로가 아니라 머지않아 도래할 밝은 미래이라는 확신을 안겨준 희망의 포대이다.

6.15통일시대와 더불어 우리 민족끼리는 유일무이한 애국리념으로, 시대정신으로 겨레의 가슴속에 자리잡게 되었다. 북과 남, 해외의 우리 겨레가 사는 곳마다에서 민족중시, 민족공조의 거센 흐름이 이어지는 속에 동족대결구도는 전체 조선 민족 대 미국의 구도로 전환되었다. 평양과 서울, 금강산 등에서 6.15와 8.15를 맞으며 성대히 진행된 민족공동의 통일행사들과 부산, 대구를 들다같은 《우리는 하나이다!》의 합성, 불꽃은 통일열기는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촉진시키었다. 6.15 민족공동위원회를 중심으로 조국통일운동은 전민적폭발로 확대강화되었다. 지난해 대립과 의견상반을 보여준 북남대화가 6.15공동선언을 리행하기 위한 공동의 방도를 진지하게 모색하는 의의있는 대화, 북남관계개선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는 구대를 벗어던진 진정한 대화로 발전하였다. 반세기이상이나 끊어졌던 철도와 도로들이 이어지고 하늘길, 바다길이 열렸다. 6.15 통일시대의 성과들과 고귀한 전승은 오늘도 해외의 온 겨레에게 우리 민족끼리의 힘에 쉰 때 북남관계와 통일문제에서 해결못할것이 없으며 우리 민족은 얼마든지 대결의 장벽을 허물고 자주통일과 평화변영을 이룩할수 있다는것을 철의 진리로 새겨주었다.

우리민족끼리였다. 6.15통일시대의 개척자이시고 령도자이시다. 전체 조선민족을 조국통일의 주체로 내세우시고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인 령도는 분

렬의 고통속에 몸부림치는 이 땅에 6.15통일시대를 안아왔다. 민족분열의 수난의 력사를 끝장내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평화와 통일의 넓은 길을 열어나가시려는 절세위인의 애국적의 대용담과 넓은 도량과 드넓지 않는 무비의 담력은 온 민족에게 조국통일위업의 빛나는 승리에 대한 확신을 안겨주었다.

6.15공동선언은 반통일세력의 도전과 방해책동을 짓부셔버리기 위한 투쟁의 무기이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리행을 위한 우리 민족의 투쟁은 반통일세력과의 치열한 대결을 동반하였다. 공동선언들을 반대하는 미국과 남조선피뢰당국의 책동은 집요하고 악랄하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리행을 위한 우리 민족의 투쟁은 반통일세력과의 치열한 대결을 동반하였다. 공동선언들을 반대하는 미국과 남조선피뢰당국의 책동은 집요하고 악랄하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리행을 위한 우리 민족의 투쟁은 반통일세력과의 치열한 대결을 동반하였다. 공동선언들을 반대하는 미국과 남조선피뢰당국의 책동은 집요하고 악랄하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리행을 위한 우리 민족의 투쟁은 반통일세력과의 치열한 대결을 동반하였다. 공동선언들을 반대하는 미국과 남조선피뢰당국의 책동은 집요하고 악랄하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리행을 위한 우리 민족의 투쟁은 반통일세력과의 치열한 대결을 동반하였다. 공동선언들을 반대하는 미국과 남조선피뢰당국의 책동은 집요하고 악랄하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조국통일유훈을 받들어 온 겨레를 통일애국의 한길로 이끌어주시는 조국통일의 구심기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투철한 민족주의 리행을 전민적폭발로 추진하여 대결시대를 되살린 리명박《정권》에 이어 현 피뢰당국도 공동선언에 배치되게 외세의존과 동족대결을 추구하면서 범죄적인 령도의 손길 이어 금강산관광사업이 활력있게 추진되고 개성공업지구가 일떠서고 같은 격동적인 사변들이 연이어 일었다. 위대한 화성, 불꽃은 통일열기는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촉진시키었다. 6.15 민족공동위원회를 중심으로 조국통일운동은 전민적폭발로 확대강화되었다. 지난해 대립과 의견상반을 보여준 북남대화가 6.15공동선언을 리행하기 위한 공동의 방도를 진지하게 모색하는 의의있는 대화, 북남관계개선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는 구대를 벗어던진 진정한 대화로 발전하였다. 반세기이상이나 끊어졌던 철도와 도로들이 이어지고 하늘길, 바다길이 열렸다. 6.15 통일시대의 성과들과 고귀한 전승은 오늘도 해외의 온 겨레에게 우리 민족끼리의 힘에 쉰 때 북남관계와 통일문제에서 해결못할것이 없으며 우리 민족은 얼마든지 대결의 장벽을 허물고 자주통일과 평화변영을 이룩할수 있다는것을 철의 진리로 새겨주었다.

6.15공동선언은 분열의 비극속에 더이상 속된오로가 아니라 머지않아 도래할 밝은 미래이라는 확신을 안겨준 희망의 포대이다.

6.15통일시대와 더불어 우리 민족끼리는 유일무이한 애국리념으로, 시대정신으로 겨레의 가슴속에 자리잡게 되었다. 북과 남, 해외의 우리 겨레가 사는 곳마다에서 민족중시, 민족공조의 거센 흐름이 이어지는 속에 동족대결구도는 전체 조선 민족 대 미국의 구도로 전환되었다. 평양과 서울, 금강산 등에서 6.15와 8.15를 맞으며 성대히 진행된 민족공동의 통일행사들과 부산, 대구를 들다같은 《우리는 하나이다!》의 합성, 불꽃은 통일열기는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촉진시키었다. 6.15 민족공동위원회를 중심으로 조국통일운동은 전민적폭발로 확대강화되었다. 지난해 대립과 의견상반을 보여준 북남대화가 6.15공동선언을 리행하기 위한 공동의 방도를 진지하게 모색하는 의의있는 대화, 북남관계개선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는 구대를 벗어던진 진정한 대화로 발전하였다. 반세기이상이나 끊어졌던 철도와 도로들이 이어지고 하늘길, 바다길이 열렸다. 6.15 통일시대의 성과들과 고귀한 전승은 오늘도 해외의 온 겨레에게 우리 민족끼리의 힘에 쉰 때 북남관계와 통일문제에서 해결못할것이 없으며 우리 민족은 얼마든지 대결의 장벽을 허물고 자주통일과 평화변영을 이룩할수 있다는것을 철의 진리로 새겨주었다.

우리민족끼리였다. 6.15통일시대의 개척자이시고 령도자이시다. 전체 조선민족을 조국통일의 주체로 내세우시고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인 령도는 분

렬의 고통속에 몸부림치는 이 땅에 6.15통일시대를 안아왔다. 민족분열의 수난의 력사를 끝장내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평화와 통일의 넓은 길을 열어나가시려는 절세위인의 애국적의 대용담과 넓은 도량과 드넓지 않는 무비의 담력은 온 민족에게 조국통일위업의 빛나는 승리에 대한 확신을 안겨주었다.

6.15공동선언은 반통일세력의 도전과 방해책동을 짓부셔버리기 위한 투쟁의 무기이다.

6.15공동선언은 반통일세력의 도전과 방해책동을 짓부셔버리기 위한 투쟁의 무기이다.

6.15공동선언은 반통일세력의 도전과 방해책동을 짓부셔버리기 위한 투쟁의 무기이다.

6.15공동선언은 반통일세력의 도전과 방해책동을 짓부셔버리기 위한 투쟁의 무기이다.

6.15공동선언은 반통일세력의 도전과 방해책동을 짓부셔버리기 위한 투쟁의 무기이다.

6.15공동선언은 반통일세력의 도전과 방해책동을 짓부셔버리기 위한 투쟁의 무기이다.

6.15공동선언은 반통일세력의 도전과 방해책동을 짓부셔버리기 위한 투쟁의 무기이다.

6.15공동선언은 반통일세력의 도전과 방해책동을 짓부셔버리기 위한 투쟁의 무기이다.

6.15공동선언은 반통일세력의 도전과 방해책동을 짓부셔버리기 위한 투쟁의 무기이다.

6.15공동선언은 반통일세력의 도전과 방해책동을 짓부셔버리기 위한 투쟁의 무기이다.

6.15공동선언은 반통일세력의 도전과 방해책동을 짓부셔버리기 위한 투쟁의 무기이다.

6.15공동선언은 반통일세력의 도전과 방해책동을 짓부셔버리기 위한 투쟁의 무기이다.

6.15공동선언은 반통일세력의 도전과 방해책동을 짓부셔버리기 위한 투쟁의 무기이다.

6.15공동선언은 반통일세력의 도전과 방해책동을 짓부셔버리기 위한 투쟁의 무기이다.

6.15공동선언은 반통일세력의 도전과 방해책동을 짓부셔버리기 위한 투쟁의 무기이다.

6.15공동선언은 반통일세력의 도전과 방해책동을 짓부셔버리기 위한 투쟁의 무기이다.

6.15공동선언은 반통일세력의 도전과 방해책동을 짓부셔버리기 위한 투쟁의 무기이다.

6.15공동선언은 반통일세력의 도전과 방해책동을 짓부셔버리기 위한 투쟁의 무기이다.

6.15공동선언은 반통일세력의 도전과 방해책동을 짓부셔버리기 위한 투쟁의 무기이다.

6.15공동선언은 반통일세력의 도전과 방해책동을 짓부셔버리기 위한 투쟁의 무기이다.

6.15공동선언은 반통일세력의 도전과 방해책동을 짓부셔버리기 위한 투쟁의 무기이다.

6.15공동선언은 반통일세력의 도전과 방해책동을 짓부셔버리기 위한 투쟁의 무기이다.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모잠비끄공화국 대통령이 선물을 드리었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아르만두 에밀리우 게부자 모잠비끄공화국 대통령이 선물을 드리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드리는 선물을 안도노우 이나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여러 나라와 지역기구에서 보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1일부터 7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나라와 지역기구에서 보도하였다. 중국 지역기구의 보도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 조선소년단창립 68돐에 즈음하여 만경대혁명학원을 방문하시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만경대혁명학원에 높이 모신 김일성주석과 김정일령도자의 동상을 꽃다발을 드리고 인사를 올리시였으며 6.6절을 쇠고있는 학원의 교직원, 원아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그리고서는 만경대혁명학원은 명실공히 김일성주석과 김정일령도자의 학원이며 혁명가들의 영원한 고향집이라고 하시면서 학원의 기본입구는 원아들을 혁명위업의 비호를 이루어나갈수 있도록 정치사상적, 군사기술적, 육체적으로 튼튼히 준비시키는데 있다고 말씀하시었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학원에 새로 건설한 종합체육관을 돌아보시였으며 만경대혁명학원과 남포혁명학원 원아들의 배우와 풍류경기를 하시었다. 그리고서는 원아들이 하나같이 끝끝하고 튼튼하다고, 원아들의 모습에서 강성조선의 앞날을 그려보게 된다고, 조선혁명가를 대를 이어 더욱 힘차게 전진시켜나갈수 있다는 신심이 생겼다고 기쁨을 표시하시었다. 그리고서는 책임인군들에게 혁명학원원아들을 잘 돌봐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하시었다. 로씨야의 이따르-파스톤신, 일본의 교도통신, 지지통신도 같은 소식을 보도하였다. 중국의 《로녕신문》, 로씨야의 인터네트잡지 《한때 저널》과 로씨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련대성

## 조선인민군 군인들의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행군대 백두산 도착, 백두산밀영교향집 방문



【산지연 6월 14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인민군 군인들의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행군대가 13일 새벽 혁명의 성산 백두산에 올랐다. 답사행군대원들은 영생불멸의 혁명송가들인 《김일성장군의 노래》, 《김정일장군의 노래》와 《백두의 딸 조국애》, 《혁명무력은 원수님 명도 받든다》 등의 노래와 합창에서 백두의 넋을 상징에 새겨안으며 선군의 천만리길을 끝까지 걸어갈 혁명적기개를 잘 보여주었다. 백절불굴의 혁명정신이 만장약된 백두산총대로 경애하는 용사들께서 행군하여온 총대높이 추켜들고 우렁찬 《만세!》의 환호성을 울렸다. 김정은혁명장군의 무적필승의 기적은 백두산정에 차넘치는 가운데 단숨에 행군하여온 군인들은 총대높이 추켜들고 우렁찬 《만세!》의 환호성을 울렸다. 김정은혁명장군의 무적필승의 기적은 백두산정에 차넘치는 가운데 단숨에 행군하여온 군인들은 총대높이 추켜들고 우렁찬 《만세!》의 환호성을 울렸다. 김정은혁명장군의 무적필승의 기적은 백두산정에 차넘치는 가운데 단숨에 행군하여온 군인들은 총대높이 추켜들고 우렁찬 《만세!》의 환호성을 울렸다.

【조선중앙통신】

【산지연 6월 14일발 조선중앙통신】

# 위대한 사상리론으로 세기의 앞길을 밝혀주시여

6월의 하늘가에 주체의 당기가 세차게 나뭇기고있다.  
위대할 당기의 정답과 눈부신 자태, 불같은 열정속에 비범한 예지와 불변 불류의 명도로 우리 당과 인민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영상이 숭엄히 어려온다.  
위대한 사상에 의하여 지도되는 당, 위대한 시대사상의 조국, 사상과 신념으로 뭉친 군대와 인민...  
세계가 경탄하는 이 자랑찬 현실은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사상리론적업적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오늘로 당에는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으로 우리 당과 혁명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는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사적문헌을 정중히 모시었다.



조선로동당 제3차 사상리론대회에서 결론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제63(1974)년 2월

위대한 장군님의 영명하신 모습에는 천리해안의 예지와 지칠줄 모르는 정열이 넘치고있다.  
우리를 수룩 사상리론의 거장을 영원한 수령으로 모신 긍지와 자부심이 가슴 가득 차오른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과 로선은 우리 당과 혁명의 영원한 지도적지침이며 혁명 실천에서 그 정당성과 생활력이 확증된 백전백승의 기지입니다.》

어떤 때에는 간단한 표현을 놓고도 며칠 동안 생각하였던 어떤 표현은 몇달동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때에는 정말 눈에 꼬박이 서는 줄도 모르고 책을 읽었고 목이 쉬도록 토론하였습니다. 점으로 잇을수 없는 독학연구기간이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김일성주의로 정식화하여 당과 인민에게 투쟁의 무기를 마련해주고 자주시대를 창조하시려는 것은 우리 장군님의 확고한 의지와 의욕과 탐구의 목표였다.

그렇고 우리 시대의 이름도 그렇고 오직 위대한 수령님의 존함과 결부시켜 부를 수 있다고 하시며 이런 내용의 뜻깊은 말씀을 하시었다.  
로동계급의 수령의 혁명사상은 예외없이 수령의 후계자에 의하여 정식화되었다. 수령의 혁명위업계승자만이 수령의 사상을 가장 원만히 알고 가장 견결히 고수할수 있으며 가장 풍부히 계승발전시킬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정식화하는것은 우리의 사명이다.

한 총서인 불후의 고전적저작 《주체사상에 대하여》를 집필하시여 우리 혁명과 인류 자주위업의 불멸의 대강을 마련해주시었다.  
사상사업을 모든 사업에 앞세워오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주제 75(1986)년부터 주제 76(1987)년 두해사이에만도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반체류쟁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길로 힘차게 나아가자》, 《주체의 혁명관을 튼튼히 세움에 대하여》 등 시대성과 독창성, 심오성으로 일관된 수많은 저작물을 발표하시여 우리 혁명의 정치사상정치를 반석같이 다지고 세계 혁명적인민들에게 커다란 힘과 용기를 안겨주시었다.

중서인 불후의 고전적저작 《주체사상에 대하여》를 집필하시여 우리 혁명과 인류 자주위업의 불멸의 대강을 마련해주시었다.  
사상사업을 모든 사업에 앞세워오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주제 75(1986)년부터 주제 76(1987)년 두해사이에만도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반체류쟁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길로 힘차게 나아가자》, 《주체의 혁명관을 튼튼히 세움에 대하여》 등 시대성과 독창성, 심오성으로 일관된 수많은 저작물을 발표하시여 우리 혁명의 정치사상정치를 반석같이 다지고 세계 혁명적인민들에게 커다란 힘과 용기를 안겨주시었다.

당과 혁명의 지도적지침인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발전 풍부화시키고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리론실천문제들에 전면적인 해명을 주시기 위하여 바쳐오신 우리 장군님의 사색과 헌신은 오늘도 천만민민의 마음을 뜨겁게 울려주고있다.  
우리 당과 혁명은 동유럽나라들에서 현대수정주의가 판을 칠 때에도 시대의 앞길을 밝히는 위대한 사상과 로선이 있었기에 사소한 편향이나 탈선을 몰랐고 제국주의련합체력이 매지어 달려들 때에도 필승의 신심드높이 영광의 한길로 즐기차게 달려왔다.

인류의 넘니와 시대의 절박한 요구를 통한 하신 우리 장군님께서서는 주제 62(1973)년 여름 어느날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제사상을 수령님의 존함과 결부시켜 부를 때가 이미 성숙되었다고 확인하시었다.  
그리고 그해 겨울에는 현지지도의 길에서 나는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김일성주의로 선포하고 우리 시대를 김일성시대로 부를 결심이라고, 우리 시대의 지도사상도

중서인 불후의 고전적저작 《주체사상에 대하여》를 집필하시여 우리 혁명과 인류 자주위업의 불멸의 대강을 마련해주시었다.  
사상사업을 모든 사업에 앞세워오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주제 75(1986)년부터 주제 76(1987)년 두해사이에만도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반체류쟁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길로 힘차게 나아가자》, 《주체의 혁명관을 튼튼히 세움에 대하여》 등 시대성과 독창성, 심오성으로 일관된 수많은 저작물을 발표하시여 우리 혁명의 정치사상정치를 반석같이 다지고 세계 혁명적인민들에게 커다란 힘과 용기를 안겨주시었다.

중서인 불후의 고전적저작 《주체사상에 대하여》를 집필하시여 우리 혁명과 인류 자주위업의 불멸의 대강을 마련해주시었다.  
사상사업을 모든 사업에 앞세워오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주제 75(1986)년부터 주제 76(1987)년 두해사이에만도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반체류쟁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길로 힘차게 나아가자》, 《주체의 혁명관을 튼튼히 세움에 대하여》 등 시대성과 독창성, 심오성으로 일관된 수많은 저작물을 발표하시여 우리 혁명의 정치사상정치를 반석같이 다지고 세계 혁명적인민들에게 커다란 힘과 용기를 안겨주시었다.

중서인 불후의 고전적저작 《주체사상에 대하여》를 집필하시여 우리 혁명과 인류 자주위업의 불멸의 대강을 마련해주시었다.  
사상사업을 모든 사업에 앞세워오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주제 75(1986)년부터 주제 76(1987)년 두해사이에만도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반체류쟁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길로 힘차게 나아가자》, 《주체의 혁명관을 튼튼히 세움에 대하여》 등 시대성과 독창성, 심오성으로 일관된 수많은 저작물을 발표하시여 우리 혁명의 정치사상정치를 반석같이 다지고 세계 혁명적인민들에게 커다란 힘과 용기를 안겨주시었다.

하나의 이야기가 들려온다.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하시던 나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맑스와 엥겔스, 레닌의 중요저서를 전면적으로 연구분석하고 재평가하시었다.

혁명의 건설전반을 이끄시는 그 바쁜 속에서 로동계급의 100년 사상사를 약 3년반동안에 총화한다는것은 어떤 정치가나 사상가도 생각할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우리 장군님의 사상리론은 인류의 지성을 뛰어넘었다. 그이께서 당중앙의 불멸의 창가에서 때로는 현지지도의 쟁수간에, 달리는 승용차 안에서 이어가신 순간순간의 탐독과 사색은 보통사람들이 일생을 바쳐도 그 높이를 이룰수 없고 그 결과에 닿을수 없는 거창한 발전의 편속이었다.

중서인 불후의 고전적저작 《주체사상에 대하여》를 집필하시여 우리 혁명과 인류 자주위업의 불멸의 대강을 마련해주시었다.  
사상사업을 모든 사업에 앞세워오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주제 75(1986)년부터 주제 76(1987)년 두해사이에만도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반체류쟁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길로 힘차게 나아가자》, 《주체의 혁명관을 튼튼히 세움에 대하여》 등 시대성과 독창성, 심오성으로 일관된 수많은 저작물을 발표하시여 우리 혁명의 정치사상정치를 반석같이 다지고 세계 혁명적인민들에게 커다란 힘과 용기를 안겨주시었다.

중서인 불후의 고전적저작 《주체사상에 대하여》를 집필하시여 우리 혁명과 인류 자주위업의 불멸의 대강을 마련해주시었다.  
사상사업을 모든 사업에 앞세워오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주제 75(1986)년부터 주제 76(1987)년 두해사이에만도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반체류쟁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길로 힘차게 나아가자》, 《주체의 혁명관을 튼튼히 세움에 대하여》 등 시대성과 독창성, 심오성으로 일관된 수많은 저작물을 발표하시여 우리 혁명의 정치사상정치를 반석같이 다지고 세계 혁명적인민들에게 커다란 힘과 용기를 안겨주시었다.

중서인 불후의 고전적저작 《주체사상에 대하여》를 집필하시여 우리 혁명과 인류 자주위업의 불멸의 대강을 마련해주시었다.  
사상사업을 모든 사업에 앞세워오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주제 75(1986)년부터 주제 76(1987)년 두해사이에만도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반체류쟁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길로 힘차게 나아가자》, 《주체의 혁명관을 튼튼히 세움에 대하여》 등 시대성과 독창성, 심오성으로 일관된 수많은 저작물을 발표하시여 우리 혁명의 정치사상정치를 반석같이 다지고 세계 혁명적인민들에게 커다란 힘과 용기를 안겨주시었다.

후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그대를 회고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었다.  
《맑스와 엥겔스, 레닌의 중요저서를 전면적으로 연구분석하는 일은 실로 방대하였습니다. ...나는 그때 맑스와 엥겔스, 레닌이 쓴 철학저서와 경제학저서를 비롯한 거의 모든 중요저서를 해부학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많은 책을 읽었습니다.》

혁명의 건설전반을 이끄시는 그 바쁜 속에서 로동계급의 100년 사상사를 약 3년반동안에 총화한다는것은 어떤 정치가나 사상가도 생각할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우리 장군님의 사상리론은 인류의 지성을 뛰어넘었다. 그이께서 당중앙의 불멸의 창가에서 때로는 현지지도의 쟁수간에, 달리는 승용차 안에서 이어가신 순간순간의 탐독과 사색은 보통사람들이 일생을 바쳐도 그 높이를 이룰수 없고 그 결과에 닿을수 없는 거창한 발전의 편속이었다.

중서인 불후의 고전적저작 《주체사상에 대하여》를 집필하시여 우리 혁명과 인류 자주위업의 불멸의 대강을 마련해주시었다.  
사상사업을 모든 사업에 앞세워오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주제 75(1986)년부터 주제 76(1987)년 두해사이에만도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반체류쟁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길로 힘차게 나아가자》, 《주체의 혁명관을 튼튼히 세움에 대하여》 등 시대성과 독창성, 심오성으로 일관된 수많은 저작물을 발표하시여 우리 혁명의 정치사상정치를 반석같이 다지고 세계 혁명적인민들에게 커다란 힘과 용기를 안겨주시었다.

중서인 불후의 고전적저작 《주체사상에 대하여》를 집필하시여 우리 혁명과 인류 자주위업의 불멸의 대강을 마련해주시었다.  
사상사업을 모든 사업에 앞세워오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주제 75(1986)년부터 주제 76(1987)년 두해사이에만도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반체류쟁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길로 힘차게 나아가자》, 《주체의 혁명관을 튼튼히 세움에 대하여》 등 시대성과 독창성, 심오성으로 일관된 수많은 저작물을 발표하시여 우리 혁명의 정치사상정치를 반석같이 다지고 세계 혁명적인민들에게 커다란 힘과 용기를 안겨주시었다.

중서인 불후의 고전적저작 《주체사상에 대하여》를 집필하시여 우리 혁명과 인류 자주위업의 불멸의 대강을 마련해주시었다.  
사상사업을 모든 사업에 앞세워오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주제 75(1986)년부터 주제 76(1987)년 두해사이에만도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반체류쟁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길로 힘차게 나아가자》, 《주체의 혁명관을 튼튼히 세움에 대하여》 등 시대성과 독창성, 심오성으로 일관된 수많은 저작물을 발표하시여 우리 혁명의 정치사상정치를 반석같이 다지고 세계 혁명적인민들에게 커다란 힘과 용기를 안겨주시었다.

## 억만금에도 비길수 없는 재부

### 우리 혁명의 천하지대본

혁명의 건설전반을 이끄시는 그 바쁜 속에서 로동계급의 100년 사상사를 약 3년반동안에 총화한다는것은 어떤 정치가나 사상가도 생각할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우리 장군님의 사상리론은 인류의 지성을 뛰어넘었다. 그이께서 당중앙의 불멸의 창가에서 때로는 현지지도의 쟁수간에, 달리는 승용차 안에서 이어가신 순간순간의 탐독과 사색은 보통사람들이 일생을 바쳐도 그 높이를 이룰수 없고 그 결과에 닿을수 없는 거창한 발전의 편속이었다.

혁명의 건설전반을 이끄시는 그 바쁜 속에서 로동계급의 100년 사상사를 약 3년반동안에 총화한다는것은 어떤 정치가나 사상가도 생각할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우리 장군님의 사상리론은 인류의 지성을 뛰어넘었다. 그이께서 당중앙의 불멸의 창가에서 때로는 현지지도의 쟁수간에, 달리는 승용차 안에서 이어가신 순간순간의 탐독과 사색은 보통사람들이 일생을 바쳐도 그 높이를 이룰수 없고 그 결과에 닿을수 없는 거창한 발전의 편속이었다.

혁명의 건설전반을 이끄시는 그 바쁜 속에서 로동계급의 100년 사상사를 약 3년반동안에 총화한다는것은 어떤 정치가나 사상가도 생각할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우리 장군님의 사상리론은 인류의 지성을 뛰어넘었다. 그이께서 당중앙의 불멸의 창가에서 때로는 현지지도의 쟁수간에, 달리는 승용차 안에서 이어가신 순간순간의 탐독과 사색은 보통사람들이 일생을 바쳐도 그 높이를 이룰수 없고 그 결과에 닿을수 없는 거창한 발전의 편속이었다.

혁명의 건설전반을 이끄시는 그 바쁜 속에서 로동계급의 100년 사상사를 약 3년반동안에 총화한다는것은 어떤 정치가나 사상가도 생각할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우리 장군님의 사상리론은 인류의 지성을 뛰어넘었다. 그이께서 당중앙의 불멸의 창가에서 때로는 현지지도의 쟁수간에, 달리는 승용차 안에서 이어가신 순간순간의 탐독과 사색은 보통사람들이 일생을 바쳐도 그 높이를 이룰수 없고 그 결과에 닿을수 없는 거창한 발전의 편속이었다.

혁명의 건설전반을 이끄시는 그 바쁜 속에서 로동계급의 100년 사상사를 약 3년반동안에 총화한다는것은 어떤 정치가나 사상가도 생각할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우리 장군님의 사상리론은 인류의 지성을 뛰어넘었다. 그이께서 당중앙의 불멸의 창가에서 때로는 현지지도의 쟁수간에, 달리는 승용차 안에서 이어가신 순간순간의 탐독과 사색은 보통사람들이 일생을 바쳐도 그 높이를 이룰수 없고 그 결과에 닿을수 없는 거창한 발전의 편속이었다.

### 조선의 모습

혁명의 건설전반을 이끄시는 그 바쁜 속에서 로동계급의 100년 사상사를 약 3년반동안에 총화한다는것은 어떤 정치가나 사상가도 생각할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우리 장군님의 사상리론은 인류의 지성을 뛰어넘었다. 그이께서 당중앙의 불멸의 창가에서 때로는 현지지도의 쟁수간에, 달리는 승용차 안에서 이어가신 순간순간의 탐독과 사색은 보통사람들이 일생을 바쳐도 그 높이를 이룰수 없고 그 결과에 닿을수 없는 거창한 발전의 편속이었다.

혁명의 건설전반을 이끄시는 그 바쁜 속에서 로동계급의 100년 사상사를 약 3년반동안에 총화한다는것은 어떤 정치가나 사상가도 생각할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우리 장군님의 사상리론은 인류의 지성을 뛰어넘었다. 그이께서 당중앙의 불멸의 창가에서 때로는 현지지도의 쟁수간에, 달리는 승용차 안에서 이어가신 순간순간의 탐독과 사색은 보통사람들이 일생을 바쳐도 그 높이를 이룰수 없고 그 결과에 닿을수 없는 거창한 발전의 편속이었다.

혁명의 건설전반을 이끄시는 그 바쁜 속에서 로동계급의 100년 사상사를 약 3년반동안에 총화한다는것은 어떤 정치가나 사상가도 생각할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우리 장군님의 사상리론은 인류의 지성을 뛰어넘었다. 그이께서 당중앙의 불멸의 창가에서 때로는 현지지도의 쟁수간에, 달리는 승용차 안에서 이어가신 순간순간의 탐독과 사색은 보통사람들이 일생을 바쳐도 그 높이를 이룰수 없고 그 결과에 닿을수 없는 거창한 발전의 편속이었다.

혁명의 건설전반을 이끄시는 그 바쁜 속에서 로동계급의 100년 사상사를 약 3년반동안에 총화한다는것은 어떤 정치가나 사상가도 생각할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우리 장군님의 사상리론은 인류의 지성을 뛰어넘었다. 그이께서 당중앙의 불멸의 창가에서 때로는 현지지도의 쟁수간에, 달리는 승용차 안에서 이어가신 순간순간의 탐독과 사색은 보통사람들이 일생을 바쳐도 그 높이를 이룰수 없고 그 결과에 닿을수 없는 거창한 발전의 편속이었다.

혁명의 건설전반을 이끄시는 그 바쁜 속에서 로동계급의 100년 사상사를 약 3년반동안에 총화한다는것은 어떤 정치가나 사상가도 생각할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우리 장군님의 사상리론은 인류의 지성을 뛰어넘었다. 그이께서 당중앙의 불멸의 창가에서 때로는 현지지도의 쟁수간에, 달리는 승용차 안에서 이어가신 순간순간의 탐독과 사색은 보통사람들이 일생을 바쳐도 그 높이를 이룰수 없고 그 결과에 닿을수 없는 거창한 발전의 편속이었다.

### 그 귀움

혁명의 건설전반을 이끄시는 그 바쁜 속에서 로동계급의 100년 사상사를 약 3년반동안에 총화한다는것은 어떤 정치가나 사상가도 생각할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우리 장군님의 사상리론은 인류의 지성을 뛰어넘었다. 그이께서 당중앙의 불멸의 창가에서 때로는 현지지도의 쟁수간에, 달리는 승용차 안에서 이어가신 순간순간의 탐독과 사색은 보통사람들이 일생을 바쳐도 그 높이를 이룰수 없고 그 결과에 닿을수 없는 거창한 발전의 편속이었다.

혁명의 건설전반을 이끄시는 그 바쁜 속에서 로동계급의 100년 사상사를 약 3년반동안에 총화한다는것은 어떤 정치가나 사상가도 생각할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우리 장군님의 사상리론은 인류의 지성을 뛰어넘었다. 그이께서 당중앙의 불멸의 창가에서 때로는 현지지도의 쟁수간에, 달리는 승용차 안에서 이어가신 순간순간의 탐독과 사색은 보통사람들이 일생을 바쳐도 그 높이를 이룰수 없고 그 결과에 닿을수 없는 거창한 발전의 편속이었다.

혁명의 건설전반을 이끄시는 그 바쁜 속에서 로동계급의 100년 사상사를 약 3년반동안에 총화한다는것은 어떤 정치가나 사상가도 생각할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우리 장군님의 사상리론은 인류의 지성을 뛰어넘었다. 그이께서 당중앙의 불멸의 창가에서 때로는 현지지도의 쟁수간에, 달리는 승용차 안에서 이어가신 순간순간의 탐독과 사색은 보통사람들이 일생을 바쳐도 그 높이를 이룰수 없고 그 결과에 닿을수 없는 거창한 발전의 편속이었다.

혁명의 건설전반을 이끄시는 그 바쁜 속에서 로동계급의 100년 사상사를 약 3년반동안에 총화한다는것은 어떤 정치가나 사상가도 생각할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우리 장군님의 사상리론은 인류의 지성을 뛰어넘었다. 그이께서 당중앙의 불멸의 창가에서 때로는 현지지도의 쟁수간에, 달리는 승용차 안에서 이어가신 순간순간의 탐독과 사색은 보통사람들이 일생을 바쳐도 그 높이를 이룰수 없고 그 결과에 닿을수 없는 거창한 발전의 편속이었다.

혁명의 건설전반을 이끄시는 그 바쁜 속에서 로동계급의 100년 사상사를 약 3년반동안에 총화한다는것은 어떤 정치가나 사상가도 생각할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우리 장군님의 사상리론은 인류의 지성을 뛰어넘었다. 그이께서 당중앙의 불멸의 창가에서 때로는 현지지도의 쟁수간에, 달리는 승용차 안에서 이어가신 순간순간의 탐독과 사색은 보통사람들이 일생을 바쳐도 그 높이를 이룰수 없고 그 결과에 닿을수 없는 거창한 발전의 편속이었다.

혁명의 건설전반을 이끄시는 그 바쁜 속에서 로동계급의 100년 사상사를 약 3년반동안에 총화한다는것은 어떤 정치가나 사상가도 생각할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우리 장군님의 사상리론은 인류의 지성을 뛰어넘었다. 그이께서 당중앙의 불멸의 창가에서 때로는 현지지도의 쟁수간에, 달리는 승용차 안에서 이어가신 순간순간의 탐독과 사색은 보통사람들이 일생을 바쳐도 그 높이를 이룰수 없고 그 결과에 닿을수 없는 거창한 발전의 편속이었다.

혁명의 건설전반을 이끄시는 그 바쁜 속에서 로동계급의 100년 사상사를 약 3년반동안에 총화한다는것은 어떤 정치가나 사상가도 생각할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우리 장군님의 사상리론은 인류의 지성을 뛰어넘었다. 그이께서 당중앙의 불멸의 창가에서 때로는 현지지도의 쟁수간에, 달리는 승용차 안에서 이어가신 순간순간의 탐독과 사색은 보통사람들이 일생을 바쳐도 그 높이를 이룰수 없고 그 결과에 닿을수 없는 거창한 발전의 편속이었다.

혁명의 건설전반을 이끄시는 그 바쁜 속에서 로동계급의 100년 사상사를 약 3년반동안에 총화한다는것은 어떤 정치가나 사상가도 생각할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우리 장군님의 사상리론은 인류의 지성을 뛰어넘었다. 그이께서 당중앙의 불멸의 창가에서 때로는 현지지도의 쟁수간에, 달리는 승용차 안에서 이어가신 순간순간의 탐독과 사색은 보통사람들이 일생을 바쳐도 그 높이를 이룰수 없고 그 결과에 닿을수 없는 거창한 발전의 편속이었다.

혁명의 건설전반을 이끄시는 그 바쁜 속에서 로동계급의 100년 사상사를 약 3년반동안에 총화한다는것은 어떤 정치가나 사상가도 생각할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우리 장군님의 사상리론은 인류의 지성을 뛰어넘었다. 그이께서 당중앙의 불멸의 창가에서 때로는 현지지도의 쟁수간에, 달리는 승용차 안에서 이어가신 순간순간의 탐독과 사색은 보통사람들이 일생을 바쳐도 그 높이를 이룰수 없고 그 결과에 닿을수 없는 거창한 발전의 편속이었다.

혁명의 건설전반을 이끄시는 그 바쁜 속에서 로동계급의 100년 사상사를 약 3년반동안에 총화한다는것은 어떤 정치가나 사상가도 생각할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우리 장군님의 사상리론은 인류의 지성을 뛰어넘었다. 그이께서 당중앙의 불멸의 창가에서 때로는 현지지도의 쟁수간에, 달리는 승용차 안에서 이어가신 순간순간의 탐독과 사색은 보통사람들이 일생을 바쳐도 그 높이를 이룰수 없고 그 결과에 닿을수 없는 거창한 발전의 편속이었다.

## 령도자와 인민

수천수만의 대중을 이끄는 정치지도자에게 있어서 따뜻한 인정은 참으로 귀중한것이다. 령도자와 인민사이에서 맺어진 숭고한 사상감정은 이 땅에 혼연일체의 대화가 끊이지 않게 하였다.

수천수만의 대중을 이끄는 정치지도자에게 있어서 따뜻한 인정은 참으로 귀중한것이다. 령도자와 인민사이에서 맺어진 숭고한 사상감정은 이 땅에 혼연일체의 대화가 끊이지 않게 하였다.

수천수만의 대중을 이끄는 정치지도자에게 있어서 따뜻한 인정은 참으로 귀중한것이다. 령도자와 인민사이에서 맺어진 숭고한 사상감정은 이 땅에 혼연일체의 대화가 끊이지 않게 하였다.

수천수만의 대중을 이끄는 정치지도자에게 있어서 따뜻한 인정은 참으로 귀중한것이다. 령도자와 인민사이에서 맺어진 숭고한 사상감정은 이 땅에 혼연일체의 대화가 끊이지 않게 하였다.

수천수만의 대중을 이끄는 정치지도자에게 있어서 따뜻한 인정은 참으로 귀중한것이다. 령도자와 인민사이에서 맺어진 숭고한 사상감정은 이 땅에 혼연일체의 대화가 끊이지 않게 하였다.

수천수만의 대중을 이끄는 정치지도자에게 있어서 따뜻한 인정은 참으로 귀중한것이다. 령도자와 인민사이에서 맺어진 숭고한 사상감정은 이 땅에 혼연일체의 대화가 끊이지 않게 하였다.

수천수만의 대중을 이끄는 정치지도자에게 있어서 따뜻한 인정은 참으로 귀중한것이다. 령도자와 인민사이에서 맺어진 숭고한 사상감정은 이 땅에 혼연일체의 대화가 끊이지 않게 하였다.

수천수만의 대중을 이끄는 정치지도자에게 있어서 따뜻한 인정은 참으로 귀중한것이다. 령도자와 인민사이에서 맺어진 숭고한 사상감정은 이 땅에 혼연일체의 대화가 끊이지 않게 하였다.

수천수만의 대중을 이끄는 정치지도자에게 있어서 따뜻한 인정은 참으로 귀중한것이다. 령도자와 인민사이에서 맺어진 숭고한 사상감정은 이 땅에 혼연일체의 대화가 끊이지 않게 하였다.

수천수만의 대중을 이끄는 정치지도자에게 있어서 따뜻한 인정은 참으로 귀중한것이다. 령도자와 인민사이에서 맺어진 숭고한 사상감정은 이 땅에 혼연일체의 대화가 끊이지 않게 하였다.

수천수만의 대중을 이끄는 정치지도자에게 있어서 따뜻한 인정은 참으로 귀중한것이다. 령도자와 인민사이에서 맺어진 숭고한 사상감정은 이 땅에 혼연일체의 대화가 끊이지 않게 하였다.

수천수만의 대중을 이끄는 정치지도자에게 있어서 따뜻한 인정은 참으로 귀중한것이다. 령도자와 인민사이에서 맺어진 숭고한 사상감정은 이 땅에 혼연일체의 대화가 끊이지 않게 하였다.

수천수만의 대중을 이끄는 정치지도자에게 있어서 따뜻한 인정은 참으로 귀중한것이다. 령도자와 인민사이에서 맺어진 숭고한 사상감정은 이 땅에 혼연일체의 대화가 끊이지 않게 하였다.

수천수만의 대중을 이끄는 정치지도자에게 있어서 따뜻한 인정은 참으로 귀중한것이다. 령도자와 인민사이에서 맺어진 숭고한 사상감정은 이 땅에 혼연일체의 대화가 끊이지 않게 하였다.

수천수만의 대중을 이끄는 정치지도자에게 있어서 따뜻한 인정은 참으로 귀중한것이다. 령도자와 인민사이에서 맺어진 숭고한 사상감정은 이 땅에 혼연일체의 대화가 끊이지 않게 하였다.

수천수만의 대중을 이끄는 정치지도자에게 있어서 따뜻한 인정은 참으로 귀중한것이다. 령도자와 인민사이에서 맺어진 숭고한 사상감정은 이 땅에 혼연일체의 대화가 끊이지 않게 하였다.

수천수만의 대중을 이끄는 정치지도자에게 있어서 따뜻한 인정은 참으로 귀중한것이다. 령도자와 인민사이에서 맺어진 숭고한 사상감정은 이 땅에 혼연일체의 대화가 끊이지 않게 하였다.

수천수만의 대중을 이끄는 정치지도자에게 있어서 따뜻한 인정은 참으로 귀중한것이다. 령도자와 인민사이에서 맺어진 숭고한 사상감정은 이 땅에 혼연일체의 대화가 끊이지 않게 하였다.

수천수만의 대중을 이끄는 정치지도자에게 있어서 따뜻한 인정은 참으로 귀중한것이다. 령도자와 인민사이에서 맺어진 숭고한 사상감정은 이 땅에 혼연일체의 대화가 끊이지 않게 하였다.

수천수만의 대중을 이끄는 정치지도자에게 있어서 따뜻한 인정은 참으로 귀중한것이다. 령도자와 인민사이에서 맺어진 숭고한 사상감정은 이 땅에 혼연일체의 대화가 끊이지 않게 하였다.

수천수만의 대중을 이끄는 정치지도자에게 있어서 따뜻한 인정은 참으로 귀중한것이다. 령도자와 인민사이에서 맺어진 숭고한 사상감정은 이 땅에 혼연일체의 대화가 끊이지 않게 하였다.

수천수만의 대중을 이끄는 정치지도자에게 있어서 따뜻한 인정은 참으로 귀중한것이다. 령도자와 인민사이에서 맺어진 숭고한 사상감정은 이 땅에 혼연일체의 대화가 끊이지 않게 하였다.

수천수만의 대중을 이끄는 정치지도자에게 있어서 따뜻한 인정은 참으로 귀중한것이다. 령도자와 인민사이에서 맺어진 숭고한 사상감정은 이 땅에 혼연일체의 대화가 끊이지 않게 하였다.

수천수만의 대중을 이끄는 정치지도자에게 있어서 따뜻한 인정은 참으로 귀중한것이다. 령도자와 인민사이에서 맺어진 숭고한 사상감정은 이 땅에 혼연일체의 대화가 끊이지 않게 하였다.

수천수만의 대중을 이끄는 정치지도자에게 있어서 따뜻한 인정은 참으로 귀중한것이다. 령도자와 인민사이에서 맺어진 숭고한 사상감정은 이 땅에 혼연일체의 대화가 끊이지 않게 하였다.

수천수만의 대중을 이끄는 정치지도자에게 있어서 따뜻한 인정은 참으로 귀중한것이다. 령도자와 인민사이에서 맺어진 숭고한 사상감정은 이 땅에 혼연일체의 대화가 끊이지 않게 하였다.

수천수만의 대중을 이끄는 정치지도자에게 있어서 따뜻한 인정은 참으로 귀중한것이다. 령도자와 인민사이에서 맺어진 숭고한 사상감정은 이 땅에 혼연일체의 대화가 끊이지 않게 하였다.

헤치시며 사회주의수호전을 승리로 이끌어난 선군혁명령도의 자욱마다를 감회깊이 추억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었다.

《십천적투쟁정령은 우리의 선군정치야말로 가장 위력하고 가장 정당한 정치방식이라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습니다. 내가 총대를 중시하고 선군정치를 하는 한 우리 나라는 깃뚛습니다.》

선행한 로동계급의 혁명리론에는 선군이 라는 말자체가 없었다. 선군혁명리론은 우리 당이 처음으로 제시한 위대한 혁명리론이며 백전백승의 기지이다. 우리 당을 선군혁명의 향도자로 강화발전시키는데 대한 사상, 선군시대 혁명의 주역군에 관한 사상, 선군시대 사회주의경제건설리론, 선군정치방식으로 경제건설을 밀고나갈데 대한 사상 등 우리 당이 독창적으로 내놓은 사상리론 들에는 혁명의 근본요구에 맞게 사상리론 활동을 벌리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위업적품모가 그대로 구현되어있다.

인민의 지향과 요구라면 어떤 어려운 리론실천문제도 혁명적으로, 창조적으로 풀어나가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사상리론활동과 정력적인 령도가 있었기에 우리는 제국주의자들과의 치열한 정치군사적대결에서 한전승을 이룩하고 조국의 존엄과 국력을 만방에 떨치게 되었으며 강성국가건설의 새로운 진격로를 열어놓게 되었다.

하기 에 미국의 VOA 방송은 《김정일령도자의 선군정치야말로 발전의 힘의 거대한 폭과 무한대의 깊이를 가늠할수 도 켈수도 없다는데 워싱턴의 비극이 있다.》고 비명을 질렀다.

혁명의 건설의 전향적면이 마련되는데 맞게 사상중시, 총대중시, 과학기술중시를 강성국가건설의 3대기둥으로 내세워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리론적업적은 우리 혁명의 만년제대로 빛을 뿌리고있다.

참으로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과 로선은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에 완벽한 해명을 주는 백과사전적인 사상리론으로, 인류자주위업수행을 힘있게 추동하는 불멸의 대강으로 빛을 뿌리고있다.

오늘 천제적인 사상리론가이시며 회색의 정치가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상과 령도를 따라 우리 조국땅에는 최후승리로 호향한 말구름소리가 높이 울리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새로운 주제 100년대전진군에서 불후의 고전적저작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높이 모시고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가자》를 비롯한 수많은 저작물을 발표하시여 최후승리의 포대를 마련해주시었다.

우리 당을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는데 대한 사상을 제시하시고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물당의 최고강령으로 선포하시였으며 김정일애국주의를 구현할데 대한 사상, 혁명적인 사상공세를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갈데 대한 사상을 비롯한 불멸의 사상리론적지침을 마련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기에 우리 당은 선군혁명의 강위력한 참모부로서 더욱 존엄발전시키고있다.

사상리론의 대가이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높이 모시고 혁명과 건설에 쌓으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사상리론적업적은 세기를 이어 빛난다.

본사기자 정 선 철  
본사기자 리 금 분

수천수만의 대중을 이끄는 정치지도자에게 있어서 따뜻한 인정은 참으로 귀중한것이다. 령도자와 인민사이에서 맺어진 숭고한 사상감정은 이 땅에 혼연일체의 대화가 끊이지 않게 하였다.

수천수만의 대중을 이끄는 정치지도자에게 있어서 따뜻한 인정은 참으로 귀중한것이다. 령도자와 인민사이에서 맺어진 숭고한 사상감정은 이 땅에 혼연일체의 대화가 끊이지 않게 하였다.

수천수만의 대중을 이끄는 정치지도자에게 있어서 따뜻한 인정은 참으로 귀중한것이다. 령도자와 인민사이에서 맺어진 숭고한 사상감정은 이 땅에 혼연일체의 대화가 끊이지 않게 하였다.

수천수만의 대중을 이끄는 정치지도자에게 있어서 따뜻한 인정은 참으로 귀중한것이다. 령도자와 인민사이에서 맺어진 숭고한 사상감정은 이 땅에 혼연일체의 대화가 끊이지 않게 하였다.

수천수만의 대중을 이끄는 정치지도자에게 있어서 따뜻한 인정은 참으로 귀중한것이다. 령도자와 인민사이에서 맺어진 숭고한 사상감정은 이 땅에 혼연일체의 대화가 끊이지 않게 하였다.

수천수만의 대중을

#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받들고 경제강국건설에 더욱 박차를 가하자

## 청천강전역이 지켜본다, 공격 또 공격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의 성패를 좌우하는 또 하나의 전선이 대안땅에 펼쳐지고있다. 단 1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10여대의 발전설비를 생산보장해야 하는 어려운 전투과업이 대안중기연합기업소의 일꾼들과 로동계급의 어깨에 무겁게 실려있다. 그 방대한 생산과제를 분기별로 무조건 수행하기 위해 총력기해나선 대안땅의 하루하루는 그야말로 공격전의 나날로 이어지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김정일애국주의를 체질화하고 실천에 철저히 구현하여 부강하고 문명한 사회주의국가를 일떠세우는 보람찬 투쟁에서 영웅적위훈의 창조자가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대안중기연합기업소의 발전설비생산에 절실히 필요한 중요자재들이 계획했던 날자보다 기업소에 늦게 도착하였다. 그로 하여 치차처럼 맞물려 있던 발전설비생산일정은 압축될대로 압축되었다. 첫 전투목표로 6월말까지 내세웠던 4대의 발전설비생산을 할수 있는가 없는가, 이 물음 앞에 기업소의 일꾼들과 로동계급은 결연히 떨쳐나섰다. 《혁명적인나날 맹세보다 실천으로, 결과로!》, 발전설비 1가공 직장현황에 나쁜 소식보다는 이 글밭이 그대로 대안로동계급의 결사투쟁의 구호로, 실천으로 이어졌다. 기업소의 책임일꾼들부터가 당장에 결의다짐 날자들을 드릴수 없다는 결사의 각오를

로동계급 에 새로운 가공자들이 창안도 입되고 종전의 가공공정들을 줄일수 있는 혁신적방법들이 나오 있었다. 6m타닝반과 200mm 보링반에 보조편판과 새 지구를 받아들이는 결과 가공일정이 긴장한 부족공공을 여러 기대들에서 동시 하고있다. 그런가하면 8m타닝반의 기대물림 필름영동무는 불려낸 물이지만 기대결을 좀처럼 떠나지 않고 긴장한 전투를 벌여 한달사이에 6개의 고정날개공공을 끝내는 위훈을 세웠다. 대안설비조립직장의 일꾼들과 로동자들도 애국전선의 하루하루를 빛내고있다. 지난 5월말 최전3호발전소 1호라빈의 가공공들이 한꺼번에 조립단계에 넘어갔다. 김창관, 류정철동무들을 비롯한 조립4작업반원들은 한자리에 모여 앉았다. 조립속도는 결정적으로 많이 드는 좋은 구멍들을 대한 습합작업시간을 단축하는데 있었다. 서로의 지혜가 합쳐지는 속에 새로운 습합방식이 창안되었다. 새로 작업반원들은 조립속도와 질을 훨씬 높였고 6일만에 우람한 1호라빈 안내장치를 우뚝 일떠세우고야 말았다. 감명철, 오영남, 최홍일동무를 비롯한 청년작업반원들은 연마기구에 중량물을 올려놓았다. 보물의 연마기도 종일 잡고 연마작업을 하기 힘들게 드는데 그 우에 중량물을 올려놓지 않으니 몇분절 힘이 들었다. 하지

## 남 흥 청년 화학 연합 기업소에서

주체비료생산 최고실적 기록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희망찬 새해에 승리에 대한 확신과 열정에 넘쳐 영웅적진군을 다그침으로써 혁명과 건설에서 일대 번영기를 열어놓아야 합니다.》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 일꾼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제재를 발표하신 50돛이 되는 뜻깊은 올해에 주체비료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여 사회주의농업전선의 병기장으로서의 영예로운 사명을 훌륭히 수행해나가고있다. 이들은 지난 1.4분기 비료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한데 이어 4월과 5월에도 말겨친 비료생산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였다. 최근에만도 기업소에서는 매일 지난해 같은 시기를 배타 수백 t의 기록을 더 생산하여 무연탄가스화에서의 주체비료생산공정 조업이래 최고실적을 기록하였다. 기업소에서 이룩한 혁신적성과는 농업을 주타격방향으로 확고히 틀어쥐고 농사에 모든 힘을 총집중할데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올해 신년사에 제시된 과업관철에 떨쳐나선 농업근로자들의 투쟁을 적극 고무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받아안은 연합기업소일꾼들이 사상의 포문을 열고 집중도화, 연속도화, 명중도화를 물리대어는 기업소가 년초부터 맹렬한 사회주의경쟁열풍으로 뚫어지게 하였다. 연합기업소의 당일공이건 행정일공이건 조급일공이건 모든 일꾼들이 선전전, 선동원이 되어 대중의 정신력을 총발동하기 위한 투쟁에 불을 질렀다. 일꾼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올해신년사와 헌지말씀관철을 위한 투쟁목표를 높이 세우고 한층향상한 초역이 없이 실행하도록 대중을 적극 불려일었다. 일꾼들은 늘린상태에 나가 어려운 모퉁이마다 어깨를 들이밀고 결린 문제를 즉시 풀어내오라고 년초부터 원로, 자체모임을 확고히 앞세우고 생산자대중이 설비관리, 기술관리의 주인이 되는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가기로 하였다. 일꾼들의 힘입은 정치사업에 무한히 고무된 기업소로동계급은 더 높은 비료생산성과로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에 충성으로 모답할데에 넘쳐 비약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키나가고있다. 비료생산의 선형정상으로부터 출산에 이르기까지 모든 직장, 모든 생산공정들에서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생산정상화의 중요고리로 정하고 대적쟁취비료운동을 힘있게 벌려 만반부, 만가들의 도움을 세차게 울려가있다. 선량공직직장의 로동자, 기술자들이 분발해나섰다. 직장에서는 선전하차장에 들어오는죽음제에 다 음공정으로 보내주는 것과 함께 탄성분량을 정확히 분석한 기초수에서 끝고공공하는 체계를 확고히 세워 질풍은 비료를 더 많이 생산할수 있게 돌파구를 열어놓았다. 성형, 후민산직장의 로동자, 기술자들도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의 요건을 엄격히 지키면서 봉단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지혜와 열정을 다 바치고있다. 현대과학기술에 기초한 자력생명의 기치를 높이 들고 생산장성의 커다란 예비를 기술혁신에서 찾은 발성로직장, 압축기직장의 기술자, 로동자들이 창조적열정을 더욱 강화해나가고있다. 발성로직장의 운전공들은 자그마한 불꽃개소도 제때에 피치고 합리적인 조작방법을 끊임없이 받아들여 생산성을 부단히 높이고있다. 압모니아, 노소직장의 운전공, 조작공들도 비료생산의 중요공정을 책임진 주일된 자각을 안고 촉매관리를 철저히 가스류질을 극력 줄이면서 원단위소비기준을 체계적으로 낮춤으로써 비료생산을 데서 큰 몫을 해체고있다. 기업소에 끊임없이 울려가는 생산정상화의 동음속에는 숨은 노력을 바쳐지는 출하직장의 보수부문 로동자, 기술자들과 혁신적성과도 깰들었다. 급속직장, 가공직장의 로동자, 기술자들도 끊임없는 생산정상화를 위하여 원만한 진행하여 주체비료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도록 힘있게 추동하고있다. 지금 남흥의 로동계급은 시비연도비료생산계획을 완수하여 급속공급과 생기공을 이룩한 공업부분의 중요초소를 굳건히 지켜갈 심심과 열정에 넘쳐 비료생산성과를 끊임없이 확대해나가고있다. 본사기자 명흥숙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현황

초산군에서 중소형발전소건설을 계속 힘있게 내밀어 군의 전력수요를 자체로 보장하는데서 좋은 성과를 이룩해나가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전력은 현대산업의 기본동력이며 전력생산을 늘이는것은 오늘 나라의 경제전반에서 일대 양상을 일으키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관건적문제로서 나서고있습니다.》 군당위회의 지도밑에 군의 일꾼들은 초산청년 1호발전소를 건설한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초산청년 2호발전소를 편이 일떠세웠다. 그리하여 공격으로 필요한 전력수요를 자체로 보장할수 있는 발전능력이 조성되게 되었다. 군지체의 힘으로 일떠세운 초산청년 1호, 2호발전소는 군의 지방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크게 이바지하고있다. 지금 군에서는 자체로 생산한 전기로 세멘트공장, 화학공장, 장공장을 비롯한 10여개 가서는 지방공업공장과 직리, 양토, 구형합동농장을 비롯한 군의 협동농장들의 양수동력

을 원만히 보장하고있다. 군에서는 소재지의 가로등은 물론 영호각, 국수직, 은덕원등 비롯한 봉사망들과 군공기판들, 수심등의 다층발전집들에 특색있게 내놓은 불장식에 요구되는 전기도 중소형발전소들에서 생산한 전기로 보장하고있다. 군중배전소에서는 초산청년 1호, 2호발전소와 긴밀한 연계를 가지면서 변전소의 배전반별 교환작업을 짜고들어 군안의 주민세대들과 인민소비품생산을 맡고 있는 지방병원, 보건, 교육부분 등 여러 단위들의 전력 수요를 충족시키고있다. 이와 함께 협동농장들에서의 농기계수리보수도 계획적으로 하고있다. 군의 현실은 물이 흐르는 곳마다에 중소형발전소들을 일떠세울데 대한 당정책이 얼마나 정당하고 생활력있는가를 웅변으로 보여주고 있다. 군당위회의 지도밑에 군에서는 전력수요를 자체의 중소형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기로 보다 원만한 해결할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힘찬 투쟁을 벌리고있다. 특파기자 동세웅

남 흥 청년 화학 연합 기업소에서 주체비료생산 최고실적 기록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희망찬 새해에 승리에 대한 확신과 열정에 넘쳐 영웅적진군을 다그침으로써 혁명과 건설에서 일대 번영기를 열어놓아야 합니다.》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 일꾼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제재를 발표하신 50돛이 되는 뜻깊은 올해에 주체비료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여 사회주의농업전선의 병기장으로서의 영예로운 사명을 훌륭히 수행해나가고있다. 이들은 지난 1.4분기 비료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한데 이어 4월과 5월에도 말겨친 비료생산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였다. 최근에만도 기업소에서는 매일 지난해 같은 시기를 배타 수백 t의 기록을 더 생산하여 무연탄가스화에서의 주체비료생산공정 조업이래 최고실적을 기록하였다. 기업소에서 이룩한 혁신적성과는 농업을 주타격방향으로 확고히 틀어쥐고 농사에 모든 힘을 총집중할데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올해 신년사에 제시된 과업관철에 떨쳐나선 농업근로자들의 투쟁을 적극 고무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 높은 목표를 향하여 곧바로 서

서창청년탄광에서 서창청년탄광이 석탄생산투쟁으로 부강부흥의 길에 나섰고있다. 한두개의 갱이나 몇몇 채탄구대, 굴진소대들에서만 혁신이 창조되지 않는다. 올해의 전투 목표를 기어이 점령하고야말겠다는 이곳 일꾼들과 탄부들의 결사의 각오와 의지가 그대로 석탄산선의 장엄한 포성으로 메아리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탄광들이 석탄생산을 적극 늘이고 철도운수를 비롯한 공업수문제를 결정적으로 풀며 전력, 석탄, 철도운수 부문에서 현대적혁신을 일으켜 나라의 경제발전을 적극 추동해나갑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받아안고 떨쳐나선 탄광의 일꾼들과 탄부들의 일선에서 근본적인 진전이 일어났다. 대담한 작전이 펼쳐지고 완강한 실행이 뒤따랐다. 이것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모든 것이 결사의 각오로 이루어졌다. 리듬적인 전투가 벌어졌다. 갑자기 물동은 터지듯 채탄중대원들은 예비채탄장으로 옮겨가 생산을 계속하였다. 고매를 마친 심정기동무들 비롯한 갱의 초급일꾼들이 채탄장부기를 맡아나섰다. 겨울철의 불리한 날씨로 하여 탄차에 실은 죽마이 쾩쾩 떨어날뻔 불을 피우고 함마질

을 들이대고 갱입구앞에 버럭적적기도 새로 설치하여 전자, 탄차들의 갱이나 몇몇 채탄구대, 굴진소대들에서만 혁신이 창조되지 않는다. 올해의 전투 목표를 기어이 점령하고야말겠다는 이곳 일꾼들과 탄부들의 결사의 각오와 의지가 그대로 석탄산선의 장엄한 포성으로 메아리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탄광들이 석탄생산을 적극 늘이고 철도운수를 비롯한 공업수문제를 결정적으로 풀며 전력, 석탄, 철도운수 부문에서 현대적혁신을 일으켜 나라의 경제발전을 적극 추동해나갑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받아안고 떨쳐나선 탄광의 일꾼들과 탄부들의 일선에서 근본적인 진전이 일어났다. 대담한 작전이 펼쳐지고 완강한 실행이 뒤따랐다. 이것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모든 것이 결사의 각오로 이루어졌다. 리듬적인 전투가 벌어졌다. 갑자기 물동은 터지듯 채탄중대원들은 예비채탄장으로 옮겨가 생산을 계속하였다. 고매를 마친 심정기동무들 비롯한 갱의 초급일꾼들이 채탄장부기를 맡아나섰다. 겨울철의 불리한 날씨로 하여 탄차에 실은 죽마이 쾩쾩 떨어날뻔 불을 피우고 함마질

## 20여일만에 또 한척의 짐배를 무었다

신의 주선박공장에서 신의 주선박공장의 일꾼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은 년간배수리 계획과 상반년배우기계획을 끝낸 기세를 늦추지 않고 계획보다 한달이상 앞당겨 수백t급 짐배를 무어내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 제시된 과업관철에 떨쳐나선 지배인 최상철, 기사장 리정중동무를 비롯한 공장의 일꾼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은 이룩한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혁신의 한길로 힘차게 내달리고있다. 초급당위회의 지도밑에 공장의 일꾼들은 새로운 짐배를 짧은 기간에 무어낸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설계와 배무이를 동시에 내밀도록 경제조직사업을 실속있게 짜고들었다. 온 공장에 배무이 전투를 위한 학습의 불바람이 세차게 일었다. 직장장 조국

초급당위회의에서는 대중의 양양된 열의에 맞게 경제선동의 불소리를 더욱 높이 울려나선 직장과 작업반호상관 사회주의경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렸다. 그리하여 공장의 일꾼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은 불과 20여일동안에 올해 네번째로 혁신을 이룩한 배를 무어내는 혁신을 창조하였다. 글 및 사진 특파기자 송창윤



신의 주선박공장 20여일만에 또 한척의 짐배를 무었다

## 영농시기별에 따르는 기술적요구

### 뒤그루큰모내기에서 나서는 문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협동농장들에서는 때 영농공정별로 준비를 면밀히 하면서 기초하여 시기별영농작업을 제때에 질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근로재방범을 받아들여야만 농사일이 안전하게 할수 있다. 우리 나라의 대부분 지방에서는 두벌재방범이 필요한 생육적온도가 결정적으로 모자란다. 두벌재방범에서 이것을 해결할수 있는 가장 좋은 방도가 바로 근로재방이다. 모판에서 모를 크게 키워 모내기를 하면 포전에 서 자라는 기간이 짧고 수확도가 낮은 율풍중대성 높을수록 뒤그루로 심어 정보방 소출을 높일수 있다. 근로재방에 걸리는 난관에 깊이 다 자란 다음에 거두거나 앞그루작물을 수확한 다음 같이하고 모내기를 하므로 포전에 살초제를 칠 필요 없다. 근로재는 시기는 벼의 기본재방범의 발생시기와 지난 다음이므로 이별때들의 피해를 받지 않는다. 살초제는 모판단계에서만 필요하기때문에 훨씬 절약된다. 이처럼 근로재방은 화학비료와 농약을 적게 쓰면서 정보방 소출을 높일수 있는 우월한 농법이다. 우선 근로의 특성에 맞게 모내기 적기를 철저히 보장하여야 한다. 씨뿌림과 근로일수에 따라

6월 중순부터 말까지 모내기를 해야 한다. 적기일수에 맞게 모를 내면 벼가 미숙되는 현상이 나타날수 있으며 모를 지나치게 크게 키워내면 골동량이 많아지고 파숙되어 이삭이 작아지면서 소출이 떨어질수 있다. 모수를 잘라야 한다. 근로재는 모를 묶은 다음 모의 키가 25-27cm 되게 옷부분을 잘라주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자른 부위에서 재생으로 문환량이 높아져 새 잎이 나오기 빠르다. 모를 뜯은 다음 모출을 2시간 남 허놓아도 한쪽면이 마르고 물에 잠긴 부분은 호흡작용을 받아 모살이 줄어 줄수 있다. 그러므로 모출은 반드시 곧추 세워놓아야 하며 모판에는 상하가 없도록 모출에 늘려 놓아야 한다. 또한 모출을 한 판에 멀리 던져 모가 상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모판에서 근로재를 뜯을 때 정해진 평방포기수와 포기당 대수가 보장되도록 모를 잘라내야 한다. 근로재 재우는 기간 외에는 일반모 수확기간을 제외하고는 근로재의 비료주기를 과학적으로 하여야 한다. 근로의 모내기일수는 중기 중점 시기 때의 일반모일수와 거의 비슷하다. 따라서 비료를 여러번 나누어 줄 필요가 없다. 뒤그루모는 비료를 전출성 정보방 200-250kg정도 주고 씨를 뿌린 다음 표층에 정사방 100kg 주어야 한다. 이 사비는 기상조건이 좋으면 30-50kg정도 덜고 비료로 주고 달서 불리하면 주지 않아야 한다. 농업성 책임부원 류명선

## 당정책의 열렬한 선전자-선군시대 모범학습강사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수천천명에 달하는 사상일꾼들만 잘 준비되어있어도 강력한 선군대군을 편성할수 있으며 이 력이되면 무서울것도 없고 못배일 일도 없습니다.》 강요적인 현실의 요구에 맞게 높은 실력을 지닌 능동적인 학습강사들을 양성하고 당정책관철에 적극 고무추동하고있는 선군시대 모범학습강사들을 아래에 소개한다.

### 평안북도 산원 고리치료실 실장 박성호 동무

발휘에 정열을 쏟아왔고있다. 선군시대 정양전투를 할 때에도 그는 여기서나 여러 출판기관을 찾아다니며 새 도서들과 책두루살아있는 위대한 자료들을 수없이 구하였다. 박성호동무가 늘 관심을 쓰는 것은 제정년 학습시간에 청강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지식을 주겠는가 하는것이다. 이렇게 하자니 학습제강을 여러번 읽으면서 그 내용을 완전히 깨닫는다고 함께 강의와 관련된 자료들을 많이 수집하여 활용하는것이 중요하였다. 그는 청강자들이 일정한 지식수준이 있는 보건부문의 일꾼들이 조건에서 강의내용을 보다 풍부히 하는데 큰 힘을 넣었다. 특히 보건부문의 현실과 관련된 자료들을 강의내용에 포함시켜 청강자들이 강의 시간에 더 많은 지식을 습득하도록 하고있다. 박성호동무는 새 학습제강을 강의할 때에도 그 시간에 배운 내용중에서 꼭 알고넘어가야 할 문제들을 간명명료하게 되설

주어 청강자들의 학습에 도움을 주고있다. 또한 당정책을 깊이 인식시키는 데나 그치지 않고 그것을 실천에 구현하는데 도움을 주고있으며 강의를 철저히 실천과 결부시켜 진행하는 원칙을 견지하였다. 선군시대 자기가 담당할 학습년의 청년들중에서 많은 일에는 열정을 내리기도 회고하여 진행되는 청년들중대활동에 낮은 적격이 없는 현상이 나타났을 때였다. 박성호동무는 어느날 저녁 청년들을 들쭉잡은 전투장에 데리고나가 그들이 전투원들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스스로 감동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다음날부터 청년들이 신의주시안의 들끓는 전투장들에 달려나가 선군전선전투의 영예를 떨치게 하였다. 지도, 걸그림 등을 배합하고 동원한 화물로 통속적이면서도 능률적 진행하는 그의 강의는 언제나 청강자들의 큰 영향을 높여주어 학습에서 큰 성과를 거두고있다. 이런 그의 강의의 열정을 《열을 많이 있는 강》, 《머리에 폭죽 들어있는 강》이라고 하면서 칭찬을 아끼지 않고있다.

### 신의주방직공장 직장장 추대식 동무

30여년을 학습강사로 일해 오고있는 추대식동무는 강의의 통속적으로 진행하여 청강자들이 우리 당의 정책을 깊이 체득하도록 하고있다. 그가 맡은 학습강사들은 모두 직장장들을 비롯한 초급일꾼들이다. 그들에게 우리 당의 정책을 깊이 심어주는 문제가 자못 중요하다는것을 자신의 체험을 통하여 잘 알고있는 추대식동무는 청강자들에게 당정책을 깊이 체득시키기 위한 학습방법에 깊은 관심을 기울였다. 필기정리식으로 학습을 진행하여서는 실로 높일수 없다고 생각한 그는 문답의 방법을 비롯한 여러가지 학습방법을 널리 활용하고있다. 학습을 문답의 방법으로 진행하지 않으면 강사인 자신이 준비를 많이 하여야 하였다.

이런데로부러 추대식동무는 학습제강을 완전히 자기것으로 만들고 중요문제점들을 짚어냈으며 그 문제를 설명할수 있게 준비를 잘 갖추게 하였다. 직장장사업을 하면서도 학습사업무도 수행하자니 모자라는것이 시간이었다. 그는 책을 볼 시간을 얻기 위해 직장의 다른 사람들과 30분이상면담을 출근후도 로동자들과 최근 후에는 2시간정도씩 학습을 하는것을 생활화하였다. 늘 책을 많이 보고있는 공적으로 손꼽히는 열성독자인 그는 신의주시안의 여러 도서관과도 밀접한 연계를 가지고 책을 탐독하고있다. 선군시대 방직공업부문에 갖는 위대한 내한수년들의 평도사적을 학습내용에 보충할 생각으로 공장도서에 갔던 추대식동무는 해당하는 도서가 이미 대출되었던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그는 물러서지 않고 시의 여러 도서관들을 찾다니며 그 도서를 끝내 찾아내어 준비를 잘 갖춘 다음 강의에 출연하였다. 학습강사로써 대중앞에 나서자면 말은 일도 잘해야 한다는 자각을 안고 추대식동무는 수많은 낮과 밤을 창조의 열정으로 불태웠으며 그 기간에 4건의 국가발명증서와 10여건의 창의안중서도 수여받았고 직장을 3대혁명을기적창조로 만드는데 적극 기여하였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리종석

이런데로부러 추대식동무는 학습제강을 완전히 자기것으로 만들고 중요문제점들을 짚어냈으며 그 문제를 설명할수 있게 준비를 잘 갖추게 하였다. 직장장사업을 하면서도 학습사업무도 수행하자니 모자라는것이 시간이었다. 그는 책을 볼 시간을 얻기 위해 직장의 다른 사람들과 30분이상면담을 출근후도 로동자들과 최근 후에는 2시간정도씩 학습을 하는것을 생활화하였다. 늘 책을 많이 보고있는 공적으로 손꼽히는 열성독자인 그는 신의주시안의 여러 도서관과도 밀접한 연계를 가지고 책을 탐독하고있다. 선군시대 방직공업부문에 갖는 위대한 내한수년들의 평도사적을 학습내용에 보충할 생각으로 공장도서에 갔던 추대식동무는 해당하는 도서가 이미 대출되었던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그는 물러서지 않고 시의 여러 도서관들을 찾다니며 그 도서를 끝내 찾아내어 준비를 잘 갖춘 다음 강의에 출연하였다. 학습강사로써 대중앞에 나서자면 말은 일도 잘해야 한다는 자각을 안고 추대식동무는 수많은 낮과 밤을 창조의 열정으로 불태웠으며 그 기간에 4건의 국가발명증서와 10여건의 창의안중서도 수여받았고 직장을 3대혁명을기적창조로 만드는데 적극 기여하였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리종석

이런데로부러 추대식동무는 학습제강을 완전히 자기것으로 만들고 중요문제점들을 짚어냈으며 그 문제를 설명할수 있게 준비를 잘 갖추게 하였다. 직장장사업을 하면서도 학습사업무도 수행하자니 모자라는것이 시간이었다. 그는 책을 볼 시간을 얻기 위해 직장의 다른 사람들과 30분이상면담을 출근후도 로동자들과 최근 후에는 2시간정도씩 학습을 하는것을 생활화하였다. 늘 책을 많이 보고있는 공적으로 손꼽히는 열성독자인 그는 신의주시안의 여러 도서관과도 밀접한 연계를 가지고 책을 탐독하고있다. 선군시대 방직공업부문에 갖는 위대한 내한수년들의 평도사적을 학습내용에 보충할 생각으로 공장도서에 갔던 추대식동무는 해당하는 도서가 이미 대출되었던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그는 물러서지 않고 시의 여러 도서관들을 찾다니며 그 도서를 끝내 찾아내어 준비를 잘 갖춘 다음 강의에 출연하였다. 학습강사로써 대중앞에 나서자면 말은 일도 잘해야 한다는 자각을 안고 추대식동무는 수많은 낮과 밤을 창조의 열정으로 불태웠으며 그 기간에 4건의 국가발명증서와 10여건의 창의안중서도 수여받았고 직장을 3대혁명을기적창조로 만드는데 적극 기여하였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리종석

이런데로부러 추대식동무는 학습제강을 완전히 자기것으로 만들고 중요문제점들을 짚어냈으며 그 문제를 설명할수 있게 준비를 잘 갖추게 하였다. 직장장사업을 하면서도 학습사업무도 수행하자니 모자라는것이 시간이었다. 그는 책을 볼 시간을 얻기 위해 직장의 다른 사람들과 30분이상면담을 출근후도 로동자들과 최근 후에는 2시간정도씩 학습을 하는것을 생활화하였다. 늘 책을 많이 보고있는 공적으로 손꼽히는 열성독자인 그는 신의주시안의 여러 도서관과도 밀접한 연계를 가지고 책을 탐독하고있다. 선군시대 방직공업부문에 갖는 위대한 내한수년들의 평도사적을 학습내용에 보충할 생각으로 공장도서에 갔던 추대식동무는 해당하는 도서가 이미 대출되었던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그는 물러서지 않고 시의 여러 도서관들을 찾다니며 그 도서를 끝내 찾아내어 준비를 잘 갖춘 다음 강의에 출연하였다. 학습강사로써 대중앞에 나서자면 말은 일도 잘해야 한다는 자각을 안고 추대식동무는 수많은 낮과 밤을 창조의 열정으로 불태웠으며 그 기간에 4건의 국가발명증서와 10여건의 창의안중서도 수여받았고 직장을 3대혁명을기적창조로 만드는데 적극 기여하였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리종석

이런데로부러 추대식동무는 학습제강을 완전히 자기것으로 만들고 중요문제점들을 짚어냈으며 그 문제를 설명할수 있게 준비를 잘 갖추게 하였다. 직장장사업을 하면서도 학습사업무도 수행하자니 모자라는것이 시간이었다. 그는 책을 볼 시간을 얻기 위해 직장의 다른 사람들과 30분이상면담을 출근후도 로동자들과 최근 후에는 2시간정도씩 학습을 하는것을 생활화하였다. 늘 책을 많이 보고있는 공적으로 손꼽히는 열성독자인 그는 신의주시안의 여러 도서관과도 밀접한 연계를 가지고 책을 탐독하고있다. 선군시대 방직공업부문에 갖는 위대한 내한수년들의 평도사적을 학습내용에 보충할 생각으로 공장도서에 갔던 추대식동무는 해당하는 도서가 이미 대출되었던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그는 물러서지 않고 시의 여러 도서관들을 찾다니며 그 도서를 끝내 찾아내어 준비를 잘 갖춘 다음 강의에 출연하였다. 학습강사로써 대중앞에 나서자면 말은 일도 잘해야 한다는 자각을 안고 추대식동무는 수많은 낮과 밤을 창조의 열정으로 불태웠으며 그 기간에 4건의 국가발명증서와 10여건의 창의안중서도 수여받았고 직장을 3대혁명을기적창조로 만드는데 적극 기여하였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리종석

# 비약의 불바람을 더 세차게 지퍼 올린 혁명군가포성

## 공훈국가합창단의 자강도순회공연이 성과적으로 진행되었다

지난 6월 9일부터 14일까지 자강도에서는 온 나라 군대와 인민의 커다란 기대와 관심 속에 공훈국가합창단순회공연이 성과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순회공연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지난해 6월 자강도 로동계급을 새로운 투쟁과 위훈에로 힘있게 불려일으켜주신 때로부터 1년이 되어오는 때에 진행된것으로 하여 자강도인민들을 무한히 격동시켰다.

자강도인민들에게 수천의 식량에도 비할수 없는 힘과 용기를 안겨준 공훈국가합창단은 이번에도 또다시 자강도에 대한 순회공연을 성과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승리의 신심드높이 강성국가건설에서 비약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키고있는 도안의 인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전투적기세를 더욱 높여주었다.

강계시와 회천시에서 공훈국가합창단은 연 12회의 공연을 진행하였으며 도안의 수만명 인민들이 공연을 관람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사상선전에서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전세대들처럼 혁명적대고조로 당중앙을 옹위하는 불적전의 기수, 위훈의 창조자가 되도록 힘있게 불려일으켜야 합니다.》

순회공연의 나팔수인 공훈국가합창단은 순회공연을 통하여 위대한 대원수님들을 영령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철리를

사람들의 심장마다에 뜨겁게 새겨주었으며 경애하는 원수님의 두리에 철통같이 굳게 굳혀 최후승리를 앞당길것을 신념과 의지를 백배해주었다.

강계시에 도착한 공훈국가합창단은 인공인덕에 높이 모신 아버지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에 삼가 꽃바구니를 드리고 충정의 결의를 다지였다.



자강도는 내 나라의 자강도는 내 나라의 자강도일세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이 혁명의 지휘성원, 인민의 총보로서는 본분을 다하기 위하여 뛰고 또 뛰어야 합니다.》

《회대군은 철검에서 멀리 떨어져 진 군이다. 그래서 세멘트와 철근을 비롯하여 건설자재를 끌어오라고 해도 다른 군들에 비하여 품질이 나쁘다. 하지만 이런 불리한 조건에서도 군에서는 규묘가 큰 여러동의 온실을 훌륭히 건설하여 도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른새벽 건설장을 돌아보는 군담책임일군의 마음은 흥족하였다. 그럴만도 하였다. 우리 인민들에게 사철 신선한 남새를 먹이시려고 그토록 마음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얼마 안있어 군의 음식구입인들은 온실덕을 볼수 있게 되겠다는 생각에서였다.》

《가장단계에 이른 호동들을 하나하나 돌아보던 군담책임일군은 문득 절음을 멈추었다. 그리고는 건설에 동원된 일군에게 물었다. 《트라스를 왜 나무로 만들기로 하였습니까?》

### 다시 고친 설계

《회대군 일군들의 사업에서》

《하지만 책임일군의 생각은 달랐다. 나무로 트라스를 제작하면 몇해후에는 나무가 부식되어 지붕공사를 다시 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인민들이 한동안 온실덕을 볼수 없게 되겠는가.》

《그날 저녁 사업총화시간에 책임일군은 이렇게 말하였다. 《결정적으로 트라스를 철근으로 다시 만들어야 하겠읍니다. 물론 우리 군의 실정에서 힘에 부

을 앞당길수 있다는것이였다. 하지만 책임일군의 생각은 달랐다. 나무로 트라스를 제작하면 몇해후에는 나무가 부식되어 지붕공사를 다시 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인민들이 한동안 온실덕을 볼수 없게 되겠는가.》

### 모잠비크 해방전선당 총비서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대표단을 만났다

엘리세우 마샤모 모잠비크해방전선당 총비서가 12일 모잠비크공화국을 방문하고있는 리수용의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대표단을 만나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대화를 하였다.

당담 제1비서이시며 조선인민의 최고경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모잠비크해방전선당과 인민 그리고 자신의 축원의 인사를 전하여드릴것을 대표단단장에게 부탁하였다.

모잠비크해방전선당과 정부, 인민의 투쟁을 적극 고무추동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로, 친선의 전통을 계속 강화해나가기 위해 적극 노력할것이라고 그는 확인하였다.

### 다음 주에 진행될 보천보해방상체육경기대회 1급경기를

다음주에 보천보해방상체육경기대회 여러 종목의 1급경기를 시작한다.

16일과 18일, 19일부터 송구남, 녀경기가 모란봉체육관에서, 정구 남, 녀경기가 함흥모방

직공체육단에서, 쇼트트볼경기가 경공업체육단에서 시작된다.

양각도축구경기장에서는 력기남, 녀경기가 창원 수영장에서, 정구 남, 녀경기가 함흥모방

《조선중앙통신》

공훈국가합창단순회공연을 통하여 자강도인민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시어 최후승리의 그날은 반드시 온다는것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으며 우리 원수님을 절사옹유해갈 굳은 결의를 다지였다.

노래 《원수님을 당할자 없다》, 《우리 원수님》을 들으며 자강도 인민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지난해 자강도를 찾아주시어 로동계급에게 베풀어주시신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다시금 깊이 새기였다.

우리 당의 선군혁명위업을 충직하게 받들어온 자강도 기계공업부문 로동계급은 더 큰 비약과 혁신으로 불려일으키기 위하여 모란봉악단공연도 함께 보아주시고 몸소 연설도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거룩하신 영상을 자강도 일군들과 인민들은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하고있다.

공훈국가합창단순회공연은 주체혁명위업의 새로운 역사적 전환기에 강계정신의 창조자대대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언제나 시대의 앞장서서 나아가려는 자강도 인민들의 불굴의 정신력을 폭발시킨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

강계시에서의 마지막공연이 있는 후 해방원에서는 공훈국가합창단의 공연성과를 축하하는 자강도학생소년들의 공연이 진행되였다.

순회공연은 강계시에 이어 회천시에서 계속되였다. 공연장소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제 87 (1998)년 자강도로동계급과 공훈국가합창단은 자강도순회

공연을 통하여 혁명군가를 울려가는 전투적인 예술집단으로서의 위력을 남김없이 과시하였다.

공훈국가합창단에서는 공연의 사상적대를 확고히 보장하면서 편곡과 연주를 비롯한 예술적형상을 특색있고도 참신하게 함으로써 관람자들의 절찬을 불러일으켰다.

기약 3중주 《우리 당의 자랑이라네》, 혼성 2중주 《연설행렬차》, 남성합창 《영사들은 행군해간다》는 약동하는 시대의 숨결이 굽이치는것으로 하여 청년들의 가슴마다에 야광의 명도따라 울게 되였다.

공훈국가합창단에서는 이번 자강도순회공연에 대한 뜻깊은 정을 안고 공연하는 자강도인민들을 비롯하여 전향하는 아름다운 화복도 절치였다.

혁명적인 사상공세로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갈데 대한 당의 방침을 앞장서서 받들어나가는 공훈국가합창단에서 진행된 자강도순회공연은 백두에서 개척된 선군혁명위업을 승려적으로 전진시켜나가기 위한 오늘의 장엄한 투쟁에서 특기할 사변으로 이로써까지 필적되였다.



공훈국가합창단은 자강도순회공연을 통하여 혁명군가를 울려가는 전투적인 예술집단으로서의 위력을 남김없이 과시하였다.

## 우리 시대 참된 인간전형의 숭고한 정신세계를 따라배우자

### 이천땅의 붉은 선동원-박연 화동무의 소행에 대한 각계의 반향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국과 인민의 부름앞에 말로써 대답할 것이 아니라 자기 몸을 대고 실천으로 대답하는것이 애국자의 자세입니다.》

지난 5월 31일부 당에 실린 기사 《우리 시대의 참된 인간전형-이천땅의 붉은 선동원》은 독자들속에서 계속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

키고있다. 온 나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이천군 신당속 산전문화동맹부 제3작업반 2분조 선동원 박연 화동무의 높은 정신세계를 따라배우 우리 사회를 이끄는 인간사랑의 대외원으로 가꾸어가고 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앞장서서 받들어나가기며 부장조국건설을 위한 애국위업에 헌몸 다 바쳐나갈 열의로 가슴 불태우고있다.

해 자기의 모든것을 바쳐온 박연화동무의 삶은 우리 선군시대 인민들이 어떻게 살며 일해야 하는가를 웅변으로 보여준 말없는 교과서, 산모범이라고 생각한다.

당보에 실린 기사를 읽고 또 읽을수록 온 나라가 다 아는 우리 시대의 참된 인간전형인 박연화동무의 모범을 따라배우 당과 조국이 기억하는 참된 애국자로 삶을 빛내일 결의를 가다듬게 된다.

강원도 인민위원회 부위원장 채일룡은 이렇게 말하였다. 이천땅의 붉은 선동원 박연화동무는 진심을 바쳐 조국을 참되게 받들어온 훌륭한 애국자이다. 이웃농장의 포전을 지나다가 말머리에 심지 못한 몇포기의 강변이 영양단지모를 보고 그대로 지나갈수 없어 손에 땀을 흘리며 강변이 영양단지모를 찾아 심는 박연화동무, 처녀시절부터 조국의 풀 한포기, 나무 한그루에 애를 쓰거는 정을 쏟지 않았다는 못 건디는 그의 리상이 깨끗한 량심이 이천땅의 부모없는 아이들을 자기가 맡아 안아 훌륭히 키우는 애국적인선으로 이어지게 하였다고 생각한다.

은 정신세계와 인간미에 감동을 금할수 없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오직 당과 수령만을 믿고 따르며 고쳐먹 모진 시련과 난관속에서도 조국의 미래를 위

강계시는 하피복공장 선동원 김갑순은 이천땅의 붉은 선동원 박연화동무에 대한 기사를 읽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같은 선동원이고 녀성이어서 그런지 한달음에 달려가 그를 축하해주고 이야기도 나누고싶은 심정이다.

대중의 앞장에서 선봉적역할을!

을 다해나갔다는것을 굳게 결의한다. 신천군 새날농장 선동원 안화숙은 이렇게 말하였다. 지난 기간 선동원으로 사업하면서 그래도 무엇이든 좀 해놓았다고 은근히 자부하고있던 자신이 막 부끄럽게 여겨졌다. 그의 정신세계는 우렁찬 나팔소리 마냥 참으로 높은 곳에서 나를 소리쳐부르고있다.

이천땅의 붉은 선동원 박연화동무는 진심을 바쳐 조국을 참되게 받들어온 훌륭한 애국자이다. 이웃농장의 포전을 지나다가 말머리에 심지 못한 몇포기의 강변이 영양단지모를 보고 그대로 지나갈수 없어 손에 땀을 흘리며 강변이 영양단지모를 찾아 심는 박연화동무, 처녀시절부터 조국의 풀 한포기, 나무 한그루에 애를 쓰거는 정을 쏟지 않았다는 못 건디는 그의 리상이 깨끗한 량심이 이천땅의 부모없는 아이들을 자기가 맡아 안아 훌륭히 키우는 애국적인선으로 이어지게 하였다고 생각한다.

이천땅의 붉은 선동원 박연화동무의 열정과 헌신에 대한 기사를 읽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같은 선동원이고 녀성이어서 그런지 한달음에 달려가 그를 축하해주고 이야기도 나누고싶은 심정이다.

이천땅의 붉은 선동원 박연화동무의 열정과 헌신에 대한 기사를 읽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같은 선동원이고 녀성이어서 그런지 한달음에 달려가 그를 축하해주고 이야기도 나누고싶은 심정이다.

이천땅의 붉은 선동원 박연화동무의 열정과 헌신에 대한 기사를 읽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같은 선동원이고 녀성이어서 그런지 한달음에 달려가 그를 축하해주고 이야기도 나누고싶은 심정이다.

이천땅의 붉은 선동원 박연화동무의 열정과 헌신에 대한 기사를 읽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같은 선동원이고 녀성이어서 그런지 한달음에 달려가 그를 축하해주고 이야기도 나누고싶은 심정이다.

《조선중앙통신》

# 《여기가 우리 사는 마을입니다》

## 전편의 새 역사를 자랑하는 평원군 원화리에서

원화! 이름처럼 아름답고 이름처럼 모든것이 정답에 안겨오는 고장이었다.

저를 데고 그뜻은 곧바로 뛰어 나간 도로며 바람에 일세 설레이는 가로수를, 그윽한 향기 풍기는 꽃나무들...

《저기 보이는 다리가 압작다 리입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던 농장일군의 말이다.

지금으로부터 50년 전 어버이수령님께서와 위대한 장군님께서 원화동농장의 강화발전과 관련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신 곳이 바로 이 다리였다.

원화리는 어버이수령님의 혁명사적이 깃든 곳이지만 살기 좋은 문화농촌으로 갈 무렵야 한다고 그리고 간곡히 말씀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말씀이 금시라도 들려줄것만 같아 우리의 가슴은 마냥 울렁이였다.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수령의 령도밑에 혁명이 전진하며 수령의 품속에서 인민의 참된 삶이 꽃피고 있다.》

살기 좋은 문화농촌! 행복의 시아처럼 흥겹게 울리는 이 말에 비친 원화리의 전편의 모습을 하루빨리 보았을다.

농장일군이 우리에게 슬며시 말을 건넜다.

《수령이시라는 말을 들어 보았습니까?》

사람지는, 귀에 선 말이였다.

알고보니 원화평은 꽤 오래전 부터 사슴을 캐던 곳으로 유명했다고 한다. 가는 곳마다 사슴을 캐던 구멍들이었는데 미제의 야수적인 폭적으로 저수지특이 터져나가 그 많은 모래가 원화평 전편에 축적되었다는 것이다.

그로서 원화평에는 농사를 짓기에는 불리한 사슴지가 늘어나게 되었다. 그러나 불모의 땅도 정성들여 가꾸어 논으로 풀어 농사를 짓는 과정에 사슴지는 논이 되었다고 한다.

땅만 변화했는가.

따사로운 태양의 빛바람에 사슴들의 생활에도 변화가 왔다. 그 이야기를 하려면 원화리의 지명유래로부터 시작해야 할것이다.

처음에는 비교적 평온한 지대에 자리잡고있었고 해서 온화함으로 불리우던 이곳은 그후 옛 농들의 하향성으로 원화리라고 이 뜻밖이라고 해서 원화라고 불리었다.

그러던 원화마을의 이름의 뜻을 고쳐주신분은 위대한 장군님이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의 은덕속에 날로 꽃피는 원화리이것만큼 《꽃 필》에 《원화》자를 써서 원화라고 하고 하겠다고 절세위원의 깊은 심중의 뜻이 어러와 우리의 가슴은 뜨거워졌다.

어버이수령님의 현치지도 수석자, 위대한 장군님의 현치지도 심자야...

절세위원들의 그뜻을 거둬들이는 현치지도와 더불어 원화리는 농업생산토대는 물론 농민들의 생활환경에서도 일대 전환을 가져왔다.

농업생산토대만 놓고보자. 어버이수령님께서 이 농장의 명에농장일이 되어서 받으신 총 분배를 강그러 들러 마련해주신 자동차와 트랙토르가 원화리의 농업생산을 위한 든든한 밑천으로 되었다는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원화리의 농업생산을 하루빨리 추켜세우기 위해 언젠가는 세필의 말과 달구지까지 보내주시던 어버이수령님, 력사의 그 사연을 전하는 말발굽소리, 달구지소리가 어디선가 들려올것만 같은 원화평이였다.

해빛방은 마을위산에 뿌리박은 피일나무들도 원화평의 선경을 돋구고있다.

그전에 원화마을사람들은 과일 나무를 심어가갈 생각을 하지 않았고있다. 쌀만 생산하던 그간 이라고 생각하던 현금이입이 적은것을 어쩔수 없는것으로 생각하던 농민들이 어버이수령님께서 보내주시신 수많은 과일나무로 과수원을 조성하기 시작하였다.

나날이 현금이입이 높아졌고 살림이 편이였다.

농민들에서는 이런 말이 노래처럼 흘러나왔다.

—이게 다 수령님 은덕이지, 수령님께서 하라고 하신데로만 하면 잘살 날이 온다니까, 원화마을의 축산토대도 그렇게 바뀌었다.

야산을 리용하여 축산업과 과수업을 발전시켜야 현금이입도 높이고 잘살수 있다고 하시며 양

을 비롯한 수백마리의 집짐승을 보내주시어 평이나 다름없던 축산토대를 하나하나 갖추어주시던 어버이수령님의 사랑을 정수로 하여 원화마을의 전편의 자랑은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원화마을사람들은 지난 시기의 성과에 자만하지 않고 최근에 덧붙여진 축산기지를 일떠세웠다.

지금 여기서는 돼지, 양, 오리 등이 실하게 자라고있는데 농장에서는 먹이문제해결을 위해 큰 단계를 밟고있다.

마을사람들의 생활에서도 언제나 웃음꽃이 만발한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사랑을 전하는 살림집건설역사의 뜨거운 사연을 안고있는 원화평에 최근에는 당의 은총속에 300세대의 멋있는 살림집이 일떠세었다.

그림처럼 장쾌한 타아소와 유치원이며 종합운동장, 리인민병원...

정병이 거닐고 저길 봐도 전세원들의 사랑으로 가득찬 력사의 고장 원화마을이다.

하기에 원화마을사람들은 오늘보다 메일은 더 살기 좋은 자기 고장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여기가 우리 사는 마을입니다!

애국심만 바라 이면적이 아니겠는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사랑이 어딘 땅에 대한 뜨거운 애착을 안고 누구나 자기 고장, 자기 마을을 선경으로 꽃피워갈때 내 조국은 더욱 살기 좋은 사회주의 무독도원으로 전변되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박옥경

## 태양의 성지에 뿌리내린 두평화

향산군 읍 64인민반 최영희동무의 가정에서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천세만세 받들어오시고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두평화앞에서 오로도록 곁을 매지 못하면서 우리 장군님이시였다! 최영희동무는 잊은 북소리로 말했다. 마다마디 북소리에 대한 남다른 애착이 느껴지는 그의 이야기였다. 원예학자가 아닌 사적부원 일꾼일것 같은 애감이 들어 물으니 그의 대답은 뜻밖이였다.

《우리 가정의 두평화와 인연은 몇개 뒤편에 소학교에 다니는 아들애의 동심에 깃들어있을니다.》

그러면서 그는 향산군 향산소학교에 다니는 아들 리길훈이 쓴 시를 보여주는것이였다.

...

내 마음 너도 알지 내 고향의 두평화야 꽃게 개개 피어서 꽃바다 펼쳐주렴 ...

알고보니 길훈이는 마을사람들로부터 향산의 두평화소년으로 불리우는 자랑찬 소년단원이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보아주시신 그의 작품집 《빨간별》과 《원예학 파라과요》에도 두평화에 대한 시와 노래가 들어있었다. 몇몇년 피는물과 나날이 어버이장군님을 목숨에 찾으며 부르며 찬송가도 찬송가 꽃을 곱했다는 길훈이, 꽃과 이렇게 인연을 맺은 길훈이는 어린 가슴에 점차 더욱 뜨거운

이 참 곱다고 앞으로 더 많이 심어야 하겠다고 하시며 못내 기뻐하시였다. 그 꽃이 바로 두평화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그처럼 사랑하신 두평화를 우리 장군님께서도 사랑하셨다고 한다. 묘향산을 찾으신것처럼 두평화앞에서 오로도록 곁을 매지 못하면서 우리 장군님이시였다! 최영희동무는 잊은 북소리로 말했다. 마다마디 북소리에 대한 남다른 애착이 느껴지는 그의 이야기였다. 원예학자가 아닌 사적부원 일꾼일것 같은 애감이 들어 물으니 그의 대답은 뜻밖이였다.

《우리 가정의 두평화와 인연은 몇개 뒤편에 소학교에 다니는 아들애의 동심에 깃들어있을니다.》

그러면서 그는 향산군 향산소학교에 다니는 아들 리길훈이 쓴 시를 보여주는것이였다.

...

내 마음 너도 알지 내 고향의 두평화야 꽃게 개개 피어서 꽃바다 펼쳐주렴 ...

알고보니 길훈이는 마을사람들로부터 향산의 두평화소년으로 불리우는 자랑찬 소년단원이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보아주시신 그의 작품집 《빨간별》과 《원예학 파라과요》에도 두평화에 대한 시와 노래가 들어있었다. 몇몇년 피는물과 나날이 어버이장군님을 목숨에 찾으며 부르며 찬송가도 찬송가 꽃을 곱했다는 길훈이, 꽃과 이렇게 인연을 맺은 길훈이는 어린 가슴에 점차 더욱 뜨거운

## 백두산천지에 늘어날 물고기자원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그전에 20cm정도밖에 크지 않았던 산천어를 백두산천지에 놓아주었는데 생래 환경에 적응되며 그런지 80cm이상으로 컸다고 합니다.》

백두산천지에 물고기자원이 또 늘어나게 되었다.

최근에 백두산천지종합합림대에서 수정된 빙어알을 백두산천지에 넣어주었다.

합림대원들의 열골마다에는 조국의 강에 물고기를 놓아주던 항일전쟁의 열혈한 조국애를 본받아 백두산천지의 동물자원을 늘려간다는 기쁨이 한껏 어려웠다.

합림대에서는 천지에 산천어를 넣어 자래온 정경에 기초하여 원형저수지에서 빙어를 옮겨 천지에서 서식시키기 위한 집중적인 연구사업을 진행하였다.

연구사이며 박사인 최근섭, 합림대원 황정렬, 배정철, 오덕승동무들은 원형저수지에서 수정된 빙어알을 물통에 담아 수정된 산천어동자구까지 자동차로 수백리, 무두봉에서부터는 눈길을 헤쳐며 수심리를 행군하여 천지호반까지 운반하였다.

합림대원들은 30cm이상 덮여있는 눈을 쳐내고 두께가 1m를 넘는 얼음을 깨낸 다음 빙어서식에 적합한 물온도가 보장되는 백두은천부근에 수정된 빙어알을 넣어주었다.

합림대물고기인 빙어는 기름지고 맛이 좋으며 번식력이 강하고 빨리 자라는 경제적이거나 볼고이기도 하다.

암록장을 비롯하여 조선식해로 흐르는 강천의 온대와 산간지대의 호수, 저수지들에 옮겨져 거기에 적응된 애기빙어는

동해산빙어에 비하여 몸길이(보통 6~10cm)가 작다.

빙어는 한마리가 보통 5천~6천개, 드물게는 1만개의 알을 낳는 번식이 빠른 물고기로서 천지산천어의 서식에 유리한 환경을 지어줄것으로 전망된다.

합림대에서 1980년대초에 백두산천지에 산천어를 넣어주어 천지산천어를 널리 퍼트린다는 천지에 빙어알을 넣은것은 그 의의가 크다.

연구자료에 의하면 백두산천지에서 빙어는 능히 서식할것으로 보고있다.

지금까지 백두산천지에서 천지산천어, 칠색송어, 북개구리, 두꺼비, 민물거북이가 서식하였는데 앞으로 빙어가 널리 퍼지면 백두산천지의 물수생물은 더욱 다양하고 풍부해질것이다.

특약기자 전철주

## 과학기술보급에 이바지하게 될 지적제품전시장

발명창작에 지적제품전시장이 새로 꾸러졌다.

운영이 시작되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틀부터가 특색있는 지적제품전시장은 벌써부터 많은 관람객의 관심을 모으고있다.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모든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자기 부문의 과학기술을 열심히 배우고 기술혁신운동에 적극 나서며 무슨 일이나 과학기술적으로 파악하고 과학기술적으로 다루는것을 생활화하여야 합니다.》

새로 꾸러진 지적제품전시장은 앞선 과학기술보급에 대한 보급사업을 강화할때 대하여 추진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높이 받들고 지적제품보급을 보다 활성화하는데 이바지할것을 목적으로 운영되고있다.

지적제품은 사람의 창조적인 정신로동에 의하여 비롯된 무형의 지적재산으로서 발명권과 특허권을 받은 기술, 과학기술성

과, 창의고안, 기술비밀같은 것을 말한다. 넓은 의미에서 이따는것을 포함하여 유형의 제품까지 지적제품으로 취급하는 것인데 이같이 엄밀한 의미에서 볼 때 지적제품은 형태가 없다.

지적제품보급은 기술창조자와 기관, 기업소를 포함한 수요자들이 합된 가격에 따라 서로 넘겨주고 받는 형식으로 진행되는데 여기에는 심의등록, 지적제품등록, 기술자문, 법률상당 등 여러가지 형태의 법률보장을 진행해 준다. 또한 지적제품보급을 위한 협의, 계약실무를 방조하고 등록하는 사업, 부분별전시회, 기술발표회, 기술경쟁 등도 널리 진행해 준다.

지적제품전시장은 직공고전압내비잡이장치, 휴대용도양분식기, 연-안라리네 무석축반이합금, 알루미늄니움합금과 미끄럼방지발판 등 10여종의 지적제품을 소개하고 수요자와의 일상적

## 개발자인 림춘동무도 새로 꾸러진 지적제품전시장에

인연계를 지어주게 된다. 그리하여 지적제품보급에 대한 사회적인식을 명백하게 하고 새로운 기술의 보급과 교류, 유통을 활성화하며 여러가지 기술봉사사업 등을 통하여 지적경제건설에 적극 이바지하게 될것이다.》

전시장에서는 발명 및 특허문헌집, 특허자료보급부서, 각종 체계 및 응용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발명등록신청문, 지적재산법, 기술자문, 법률상당 등 여러가지 형태의 법률보장을 진행해 준다. 또한 지적제품보급을 위한 협의, 계약실무를 방조하고 등록하는 사업, 부분별전시회, 기술발표회, 기술경쟁 등도 널리 진행해 준다.

지적제품전시장은 직공고전압내비잡이장치, 휴대용도양분식기, 연-안라리네 무석축반이합금, 알루미늄니움합금과 미끄럼방지발판 등 10여종의 지적제품을 소개하고 수요자와의 일상적

개발자인 림춘동무도 새로 꾸러진 지적제품전시장에 자기들이 개발한 여러가지 약품인것을 제품중의 하나로 선출된것에 기쁘기도 하다. 기쁘게 생각하는 것은 제품개발자들의 주관적인 설명이 필요없이 나라의 주요한 과학기술인력관에 수 운영되는 지적제품전시장에 전시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수요자들에게 제품의 과학기술성신명성을 담보해주게 된것이라고 말한다.

당의 과학기술중시리선관철에 이바지하기 위한 발명창작 일꾼들의 진취적인 사색과 헌신적인 노력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운영된 지적제품전시장은 한 단위에서 창조된 과학기술성과를 사회전반에 널리 보급하기 위하여 지적제품보급을 활성화하고 과학자, 기술자들과 일꾼들, 근로자들의 과학연구사업과 발명창작사업을 고무추동하는데서 특색있고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리명희



청춘의 기백이 넘치는 고상하고 단정한 머리단장 -경덕병원연합기업소 제3선광장 선광원에서- 본사기자 김진명 찍음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질병예방사업을 대중화하는것은 질병을 미리막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입니다.》

인체의 항상성을 파괴하는 여러가지 요인들에 대한 적응 과정에 몸안에서 나타나는 비특이적반응상태를 스트레스라고 한다.

불합리한 환경과 생활양식 등으로 하여 생긴 스트레스를 제때에 해소하지 않으면 인체내에서는 부정적인 생리적반응이 지속되게 된다.

신경증, 허혈성심장질환, 당뇨병, 소화성궤양 등의 발생은 주요하게 스트레스와 연관되어 있다.

스트레스는 자율신경질조절을 비롯한 신경계통질환들도 유발시킨다.

허혈성심장질환이 스트레스와 관련되어 있다는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스트레스는 교

감신경계통의 활성을 강화하며 피가 걸이지게 함으로써 심장혈관계통에서의 피흐름을 저해한다.

또한 교감신경-신장선계통을 자극하여 산소소비량을 늘임으로써 심근의 저산소증을 초래한다.

이것은 허혈성심장질환의 주된 요인으로 된다.

당대사장애가 있는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위장장애를 일으키는 급속한 장애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은 항시적인 인슐린 부족을 일으켜 당뇨병을 발생시킬수 있다.

또한 일부 스트레스요인들이 당질을 축적시켜 혈당량을 높인다는것은 최근 많은 연구자료들에 의하여 확증되었다.

스트레스에 의하여 급성위장막염의 대부분이 발생하거나 만성위궤양이 재발할수 있다.

교감신경이나 부교감신경이

스트레스에 의하여 자극되면 위벽의 모세혈관들에서 경련성수축이 일어나고 이호흡이 장애될수 있다. 그렇게 되면 위장벽의 상피세포에서 허혈과 산소부족 등이 일어나고 세포내에서 나쁜 영향을 줄수 있다. 이러한 현상들이 반복되면 결국 궤양이 생긴다.

이밖에도 스트레스는 소아 및 노인기질병, 암, 사와 변비, 종양의 발생, 기관지 천식발작 등에 영향을 미친다.

누구나 질병의 발생 및 악화에 미치는 스트레스의 영향을 잘 알고 환경조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생활양식을 잘 지켜야 한다.

그리고 생활을 언제나 락전적으로, 문화정서적으로 해나가야 한다.

라구, 배구를 비롯한 체육을 생활화하며 로동과 휴식을 적극 배합하여 몸을 튼튼히 단련해야 한다.

김만우병원 부원장 안광진

## 세계 여러 나라들의 특색있는 풍습

앵두나무가지에 살짝 적셔 뿌리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대어나 물통을 리용하여 뿌리며 심지어 수도꼭지채로 쏟아내는 사람들도 있다.

이날은 아이들이 어른들한테 물총공격을 들이대도 꾸지람을 듣지 않는다.

만나사람들은 물이 좋은 일과 행운을 상징하므로 물을 많이 뿌릴수록 더 많은 복이 찾아온다고 여긴다.

이런 사람은 향기로운 장미꽃잎이 피있는 은대제의 물을

## 복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열정적이고 활발하며 복치기간이 남달라 뛰어나다. 이곳 젊은이들은 모두 우수한 복치기가 될것을 희망한다.

우수의 복치기는 사람들의 사랑을 받들뿐 아니라 부부의 중매, 한 회의와 각종 경축행동에 우선적으로 참가할수 있다.

이들의 복치기기간은 복을 정확히 치는것과 함께 물음이 아름다운데 있다.

부부들에서는 해마다 상대

## 여름철 잔디밭에 발생하는 병과 그 예방주제 (2)

### 동전마름병

이 병은 모든 종류의 잔디에서 4~10월에 발생하여 피해를 준다.

잔디가 이 병에 걸리면 회거나 누런반점의 병반을 형성하면서 죽는다. 이때 죽은 잔디들이 동전만한 크기의 무리를 이룬다는 의미에서 동전마름병이라고 한다.

동전마름병에 걸린 잔디잎들은 처음에 누런반점의 반점이 생기는 데 점차 변두리가 붉은반점을 띠는 누런반점의 반점으로 된다. 이른 아침에 이슬이 맺힌 잔디밭에서는 흰 거미줄모양의 균실을 볼수 있다.

이 병의 증상은 여름계절 아무때나 나타날수 있다. 대기온도가 27°C이상일수록 습도가 높을 때 심하게 나타난다. 특히 여름철에 물을 자주 준 잔디밭에서 제일 심하게 나타난다. 무더위가 지속되고 습기가 많을 때에는 물을 주지 않은

잔디밭에서도 나타날수 있다.

동전마름병은 때때로 가을철에도 발생할수 있다.

잔디에 질소성분이 부족하거나 잔디풀이 천천히 자라는 시기에 더 심하게 나타난다.

늦은 봄에 질소비료를 주면 동전마름병의 발생을 줄일수 있다. 그것은 동전마름병이 퍼지기 시작하는 시기인 초여름에 잔디의 생장을 왕성하게 하기때문이다. 이때 효과가 더욱 지속되는 질소비료를 적게 치는것이 효과가 빨리 나타나는 질소비료를 많이 치는것보다 좋다.

이른 아침에 잔디를 깔거나 비자루로 잔디밭을 쓸어주어 이슬을 없애주어야 된다.

동전마름병을 미리막자면 바젤루스균제 1호생물농약을 물과 1:200의 비율로 섞어 7~10일간적으로 잔디밭에 분무해주어야 한다. 구제하려는 경우에는 물과

### 1:100의 비율로 섞어 분무한다.

잔수제제가 있는 잔디밭에서 동전마름병이 오랜 기간 발생한 경우에는 살균제를 쓰는것이 매우 효과적이다.

살균제는 동전마름병을 구제하는 데 널리 쓰인다. 이때 접촉살균제와 침투성살균제를 함께 쓰면 더 좋다.

여름마름병

이 병은 주로 왕길의, 왕메밀 등에서 7~9월에 발생한다.

여름마름병은 발생초기에는 직경이 5~8cm정도 되는 작은 원형의 병반형태로 나타나며 병이 퍼지면 50cm정도까지의 크기로 병반이 커진다. 이 병반은 처음에는 노란색을 띠다가 잔디가 죽으면서 누런반색 혹은 짙은노란반색으로 변한다. 심한 경우에는 병반들이 합쳐지면

### 서 넓은 면적의 잔디밭을 못쓰게 만든다.

여름마름병은 날씨가 무덥고 비가 많이 내리는 날, 다시말하여 온이 높고 대기습도가 높을 때 많이 발생한다.

이 병을 미리막자면 잔디밭을 회수를 줄이고 비료를 자주 주지 말고 물주기를 조절하여야 한다.

잔디밭을 진행한 후 하반정을 700배로 희석하여 분무하여도 된다.

바젤루스균제 1호생물농약을 물과 1:200의 비율로 섞어 7~10일간적으로 분무하여주면 이 병을 미리막을수 있다. 구제하려는 경우에는 물과 1:100의 비율로 섞어 분무한다. 병발생초기에 하반정을 500배로 희석하여 분무하여도 된다.

국가과학원 잔디연구소 부원장 김률석



자기 일터를 공원과 같이 알뜰히 꾸려가고 있다. -김정숙영양제사공장에서- 본사기자 림학락 찍음

